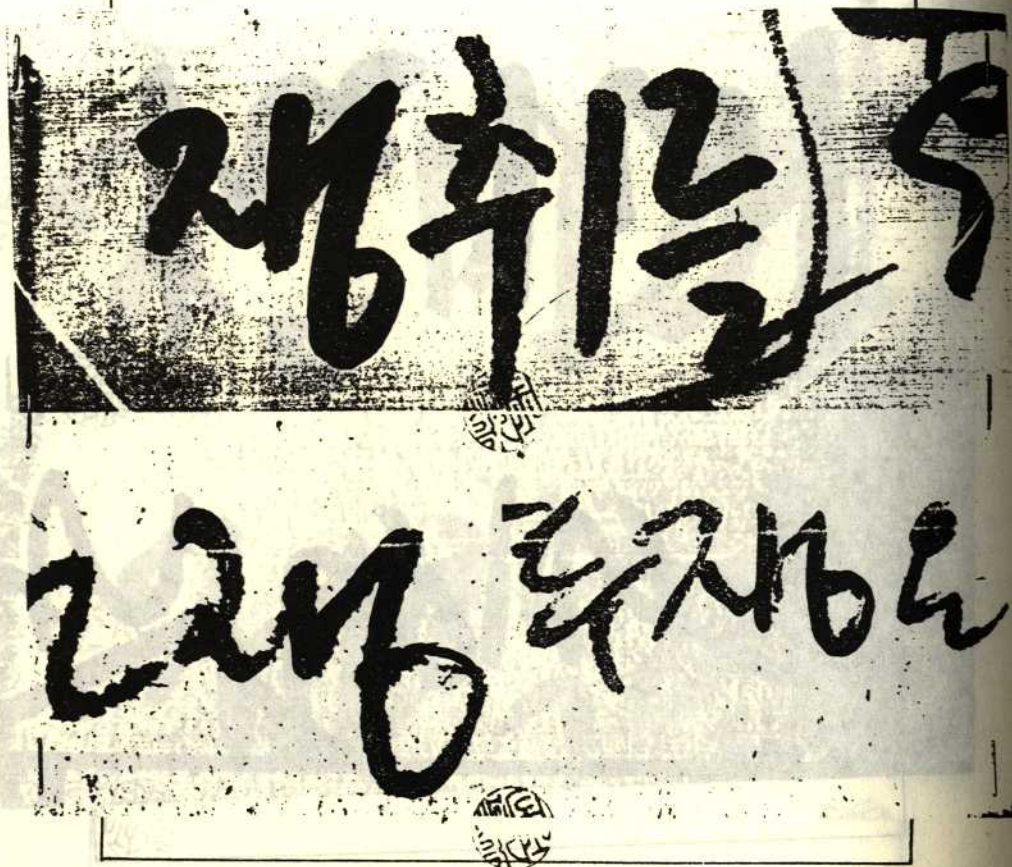


(사진제 5호)



상: 1.유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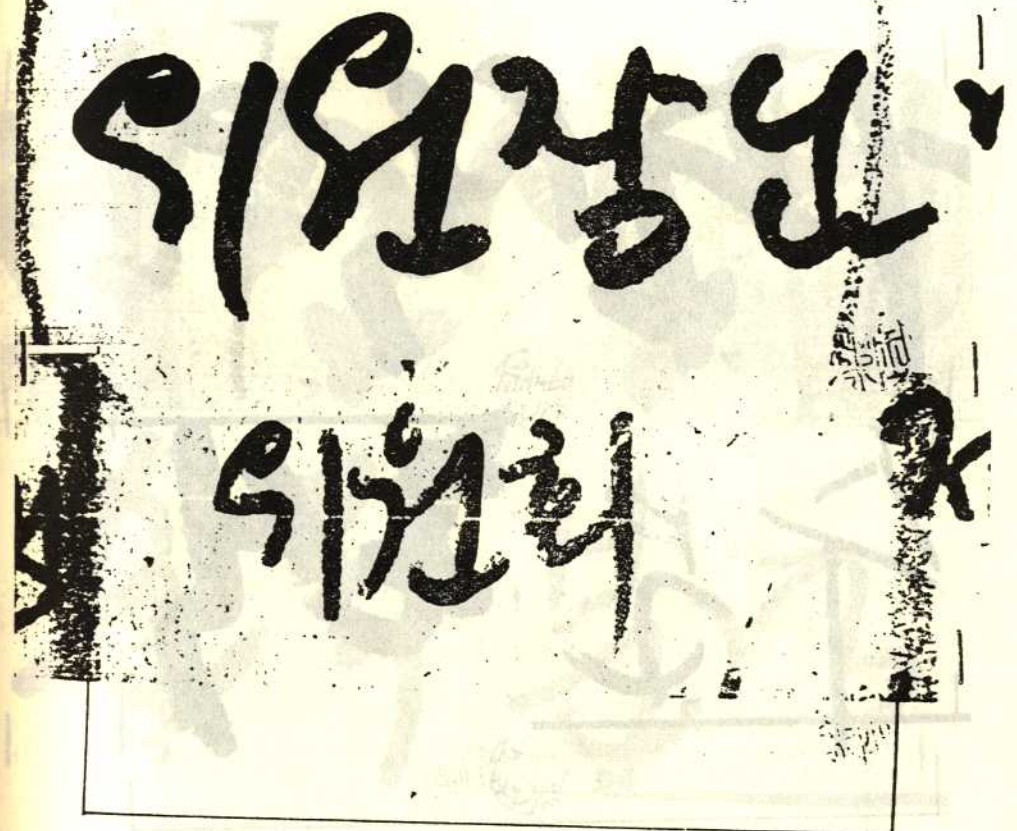
아좌:9, 아우:10.강기훈 필적 부분 확대사진.

朱線표시는 각 증거물 필적과 동일특징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2011. 11. 11
A16

(사진제 10호)



상: 1.유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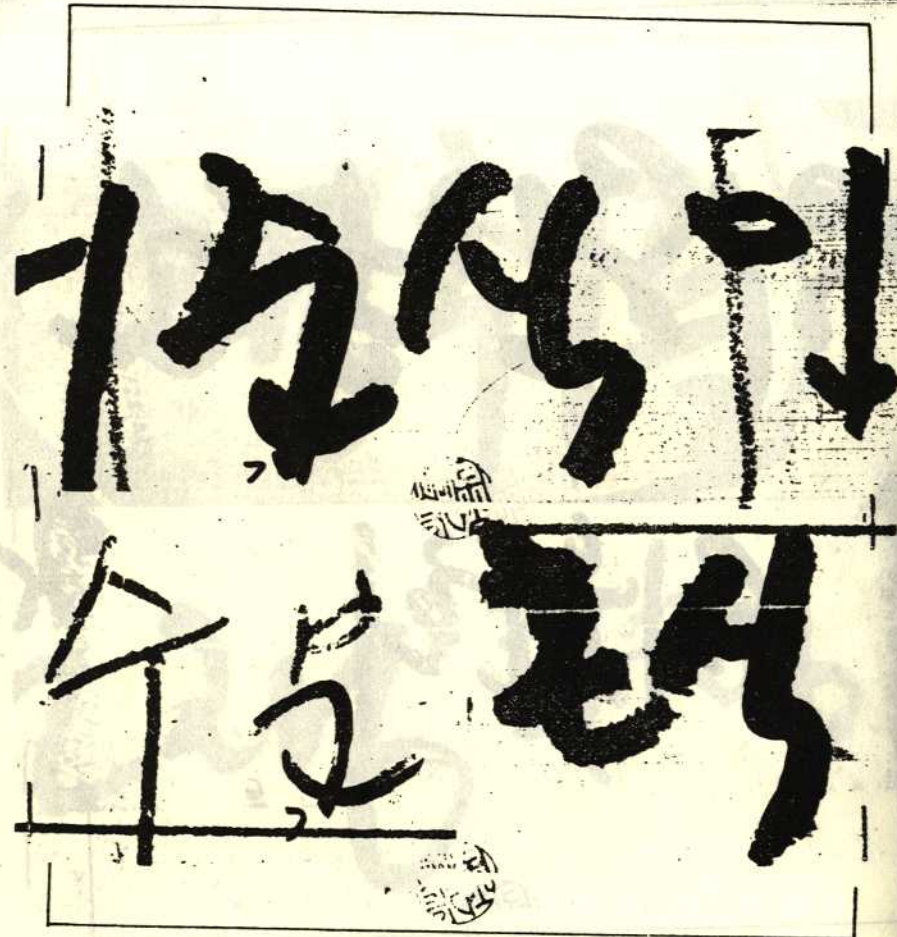
아: 6.강기훈 필적 부분 확대사진.

朱線표시는 각 증거물 필적과 동일특징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2011. 11. 11
A47

(사진제 1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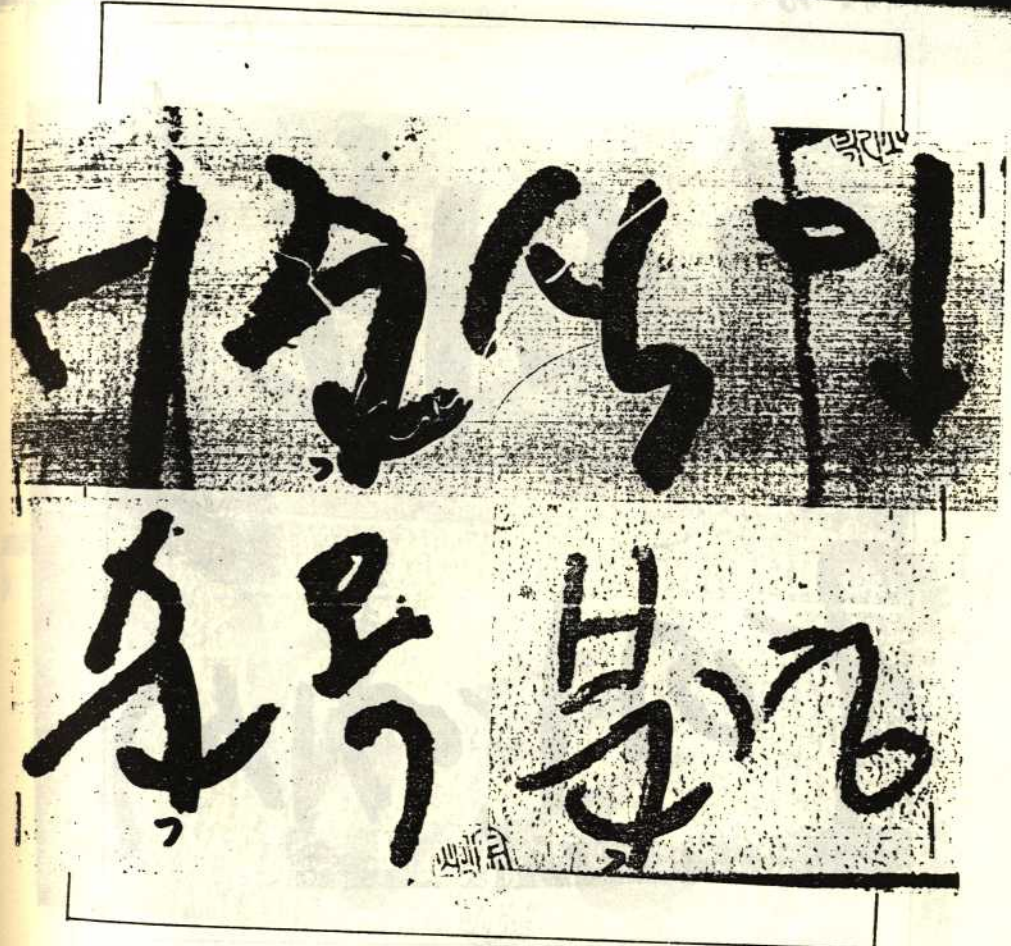


상: 1.유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아좌: 7.강기훈진술서, 아우: 3.강기훈수첩 필적 부분 확대사진.
朱線표시는 각 증거물 필적과 동일특징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AKP

(사진제 1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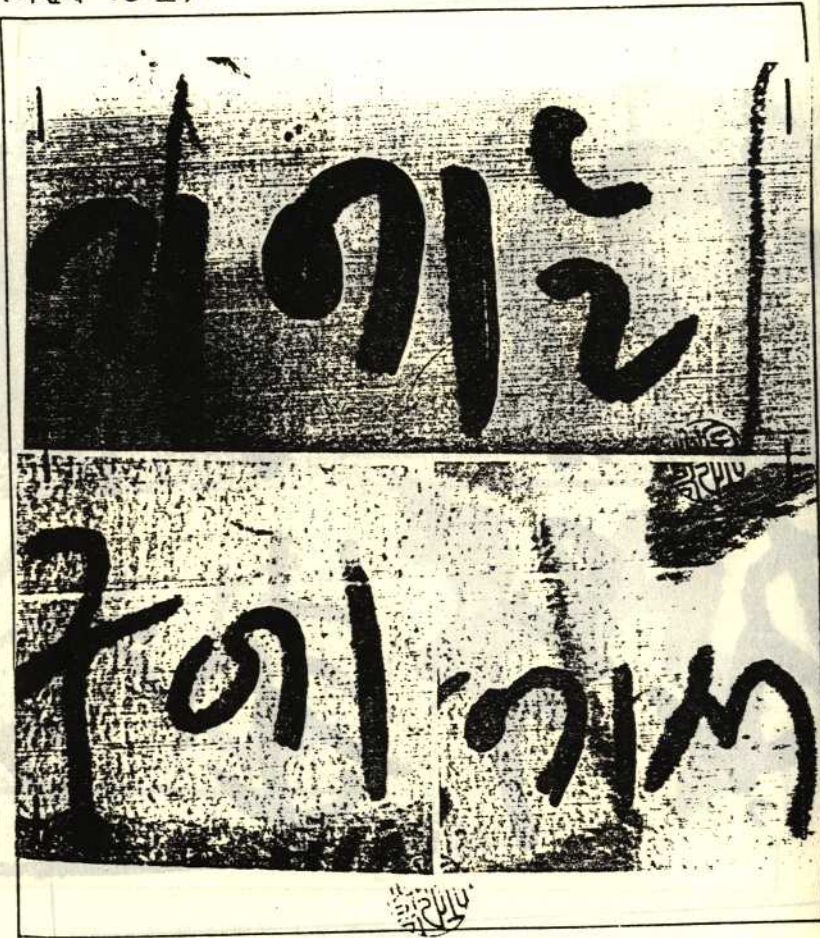


상: 1.유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아좌: 3.강기훈수첩, 아우: 7.강기훈진술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朱線표시는 각 증거물 필적과 동일특징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AKP

(사진제 13호)



상: 1.유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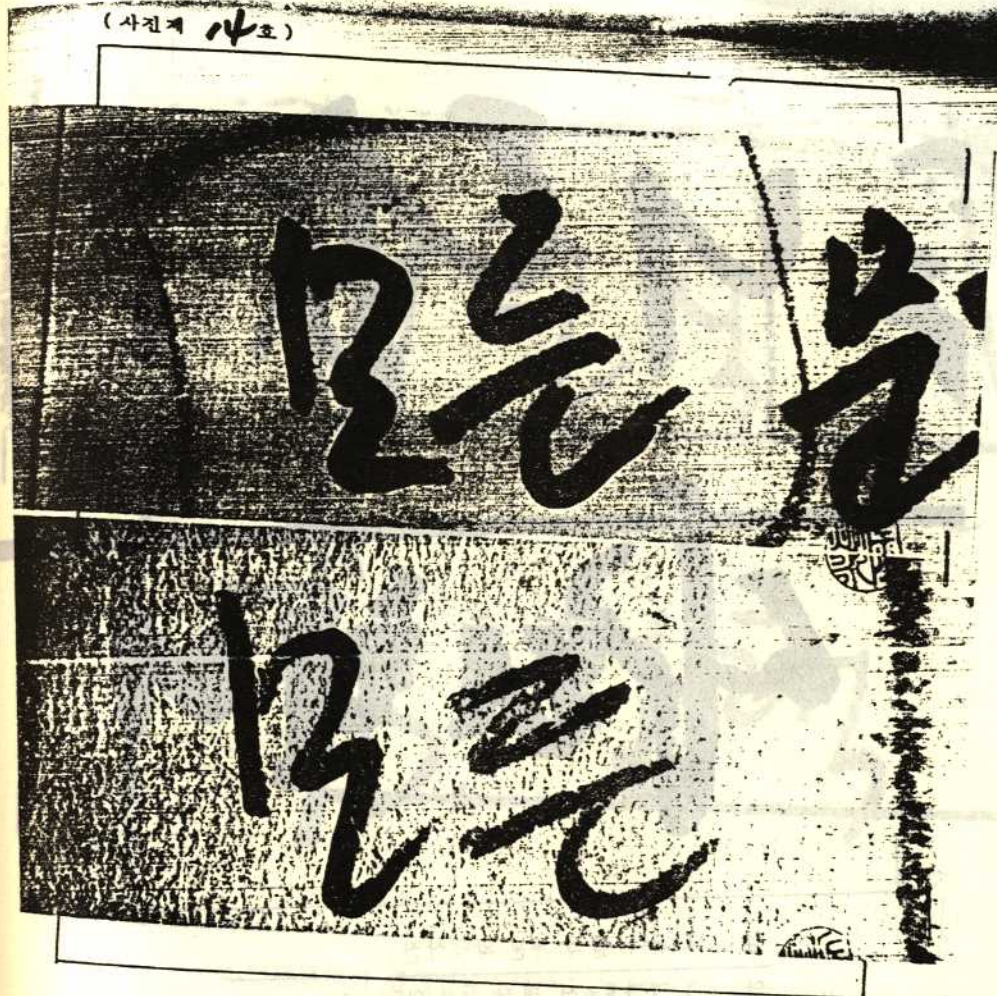
하: 7.강기훈 진술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朱線표시는 각 증거물 필적과 동일특징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Handwritten mark

(사진제 1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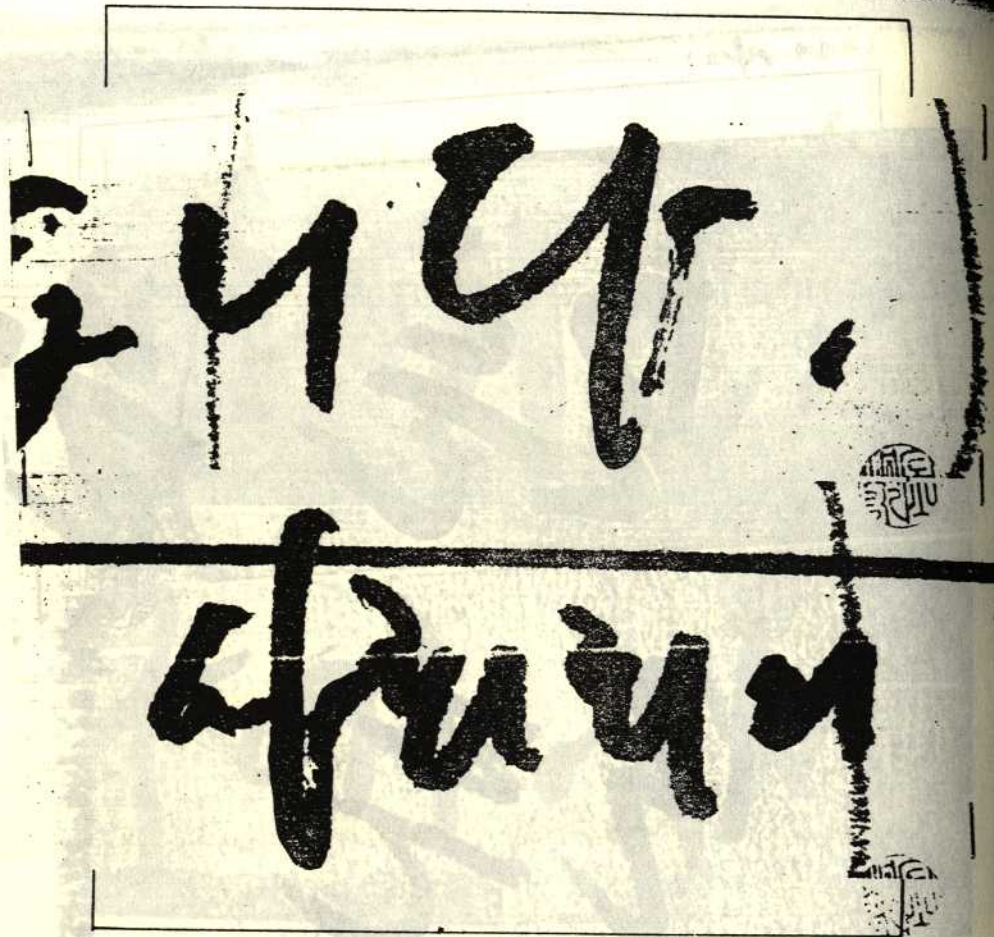
상: 1.유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하: 6.강기훈 진술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朱線표시는 각 증거물 필적과 동일특징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Handwritten mark



상: 1.유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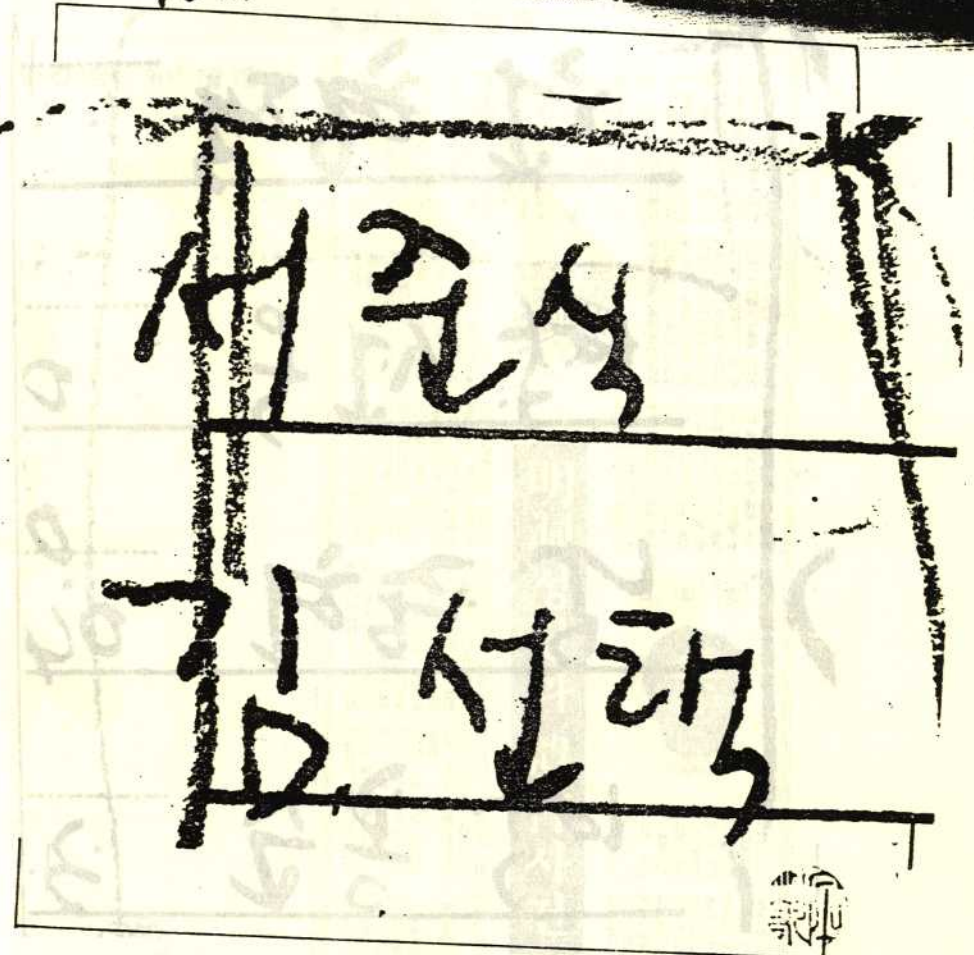
아: 3.강기훈수첩 필적 부분 확대사진.

朱繼표시는 각 증거물 필적과 동일특징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A52

(가친계 10호)



2.전민련에서 김기실의것이라고 제출한 수첩 필적 부분 확대사진.

朱繼표시는 각 증거물 필적과 동일특징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A53

(사진계 09 호)

김형택
 박성룡 0
 남중현 04
 박홍순 3

2. 전민련에서 김기설의 것이라고 제출한 수첩 필적 ~~추정~~ 대사진.

失蹤者 姓名 各 증거물 필적과 동일 특징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입니다

PSK

91년 7월 17일

자료 가2-63 (동아, 91년 7월 7일)

정치

明洞성당과 遺書사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유서 사건이 정치계와 언론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유서 사건이 발생한 지 10여일이 지난데도 유서 사건의 진상 규명이 지연되고 있다. 유서 사건이 발생한 지 10여일이 지난데도 유서 사건의 진상 규명이 지연되고 있다. 유서 사건이 발생한 지 10여일이 지난데도 유서 사건의 진상 규명이 지연되고 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유서 사건이 정치계와 언론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유서 사건이 발생한 지 10여일이 지난데도 유서 사건의 진상 규명이 지연되고 있다. 유서 사건이 발생한 지 10여일이 지난데도 유서 사건의 진상 규명이 지연되고 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유서 사건이 정치계와 언론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유서 사건이 발생한 지 10여일이 지난데도 유서 사건의 진상 규명이 지연되고 있다. 유서 사건이 발생한 지 10여일이 지난데도 유서 사건의 진상 규명이 지연되고 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유서 사건이 정치계와 언론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유서 사건이 발생한 지 10여일이 지난데도 유서 사건의 진상 규명이 지연되고 있다. 유서 사건이 발생한 지 10여일이 지난데도 유서 사건의 진상 규명이 지연되고 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 : 그러면 첫째장과 둘째장 및 세째장의 연필로 기재된 글씨는 누구의 글씨인지 알겠는가요.

답 : 첫째장의 연필 글씨는 전민련 사회국 부장으로 일하다가 금년 3월경 국민연합에 파견된 이동진의 글씨처럼 보이고 둘째장과 세째장의 연필 글씨는 김기철의 글씨라고 추측합니다.

문 : 진술인이 둘째장과 세째장의 글씨를 김기철의 글씨로 추측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제가 김기철과 같은 사회국에서 일을 한 지가 두 달이 조금 못될 것 같은데 김기철이가 글씨를 쓰는 것을 한두 번 보기는 하였지만 그의 글씨를 제대로 기억할 수는 없고 다만 평소 사회국 업무일지를 김기철이가 작성하여 왔기 때문에 김기철의 글씨일 것으로 추측을 할 뿐입니다.

문 : 진술인은 이 글씨를 알아보겠는가요.

답 : 이때 증제4-3호(90년 민족민주운동의 평가와 91년 전망)의 표지(75)에 푸른색 만년필 글씨로 보이는 "국민연합 김기철님"라고 기재된 부분을 제시하고 열람케 한바,

답 : 보여주시는 글씨중 앞에 있는 "국민연합"이라는 녀자는 저의 글씨이고 뒤에 있는 "김기철님"의 녀자는 저의 글씨가 아닌데 누구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문 : 진술인은 언제 무슨 연유로 위 책자의 표지에 "국민연합"이라는 글씨를 써넣게 되었는가요.

답 : 제가 언제 왜 썼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 책을 보니 1991년 "정세연구" 신년호인데 짐작하기로는 제가 국민연합에 파견되어 있을 때 이 책을 배포하는 민족민주운동연구소로부터 중정받아 제 소속인 국민연합이라는 글자를 적어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문 : 진술인은 1991. 4 하순 강경대 치사사건이 발생한 때부터 이번 검거될 때까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요.

답 : 저는 강경대 사건이 발생하자 1991. 4. 27.경부터 강경대사건 대책회의에 파견되어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3층에 있는 대책회의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4월 말경 각 단체의 대표자회의에서 대책회의의

부대변인으로 선정되어 일을 하였으며, 공식적으로는 장례가 5. 18까지 그 직에 있었으나 실제로는 김기철 분신사건이 발생한 5. 8.경부터 부대변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고 5. 10.경부터는 김기철 장례준비위원회의 의전관계일을 보았는데 5. 18까지는 계속하여 위 연세대학 학생회관 3층에 있었으며 5. 18에는 강경대 운구행렬을 따라 광주에 갔다가 5. 20.경 서울로 올라오다가 청주의 남중현의 집에서 일박하고 5. 21. 낮에 서울로 올라왔으며 5. 22.부터 총로 5가에 있는 전민련 사무실에 나갔고, 5. 25.부터는 김귀정양의 시신이 있는 백병원에 가서 김귀정양 대책위의 상황실에서 상황실의 일원으로 일하였으며, 6. 14. 김귀정양의 장례가 끝난 후에는 전민련 사무실로 복귀하였다가 6. 말경부터 저를 찾는다고 하기에 제 생각과 전민련 실무자들의 의견에 따라 강기훈이가 검찰에서 목비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참고인으로 진술하거나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줄 일이 못된다고 판단하고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친구집이나 다른 사무실 등으로 돌아다녔습니다.

문 : 전민련측에서 5. 11.에 검찰에 제출한 사회국 업무일지와 5. 20.에 제출한 전민련의 수첩을 검찰에 오기 전 본 적이 있는가요.

답 : 사회국 업무일지는 전민련 사무실에서 한두 번 본 적이 있지만 김기철이 사망한 5. 8. 이후 검찰에 제출될 때까지는 본 적이 없고 또 그 업무일지를 검찰에 제출할 때까지 관여한 적도 없으며 5. 20.에 검찰에 제출되었다는 김기철의 전민련 수첩은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문 : 진술인에게 참고로 더 할말이 있으면 말하여 보시오.

답 : 없습니다.

이때 1991. 7. 7. 진술인 임무영의 집에서 입수한 노트 8권을 차례로 제시하고(1. 도서출판 문장에서 나온 "노우트 영화, 아트북", 2. 검정색 표지의 대학 노트 "블랙키", 3. 빨간색 화일노트, 4. 대학노트 제품 "노트북", 5. 오성노트사 제품 "노트북", 6. 스프링노트-내용증 첫장에 "날개야 다시 돌아라...", 7. 스프링노트-내용증 첫장에 "가재형제", 8. 스프링노트-첫장에 "노동 경제학") 위 8권을 차례로 확인케 한 후,

문 : 위 노트 8권은 진술인의 집에서 나온 것인데 진술인의 노트이며 또 진술인의 글씨가 틀림없는가요.

답 : 지금 보여 준 8권의 노트는 모두 저의 것이며 그 속에 쓰여져 있는 글씨도 제가 쓴 것이 틀림없습니다.

문 : 그러면 위 노트들은 언제쯤 작성된 것들이가요.

답 : 주로 고 2, 3때부터 대학시절과 졸업 후에 쓴 것인데 첫번째와 두번째 노트는 고등학교 시절 1981년경에 쓴 것이었고, 3번째와 4번째는 1989년 무렵에 써놓은 노래 책이며 7번째는 1987년 무렵 홍사단에 있을 때 쓴 것이고 8번째는 대학교 4학년 1985년경에 쓴 것들입니다.

문 : 그러면 세번째와 네번째 노트가 가장 근래의 글씨인가요.

답 : 네, 그렇습니다.

문 : 참고로 더 할말이 있는가요.

답 : 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 대로 오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무인케 하다.

진술자 임무영

1991. 7. 9.

서울 지방 검찰청

검 사 신 상 규

검찰주사(보) 신 인 섭

☐자료 가-1-150 (수사기록 963~980)

피의자 신문조서

(제 6 회)

성 명 강 기 훈

주민등록번호

위의 사람에 대한 자살방조 피의사건에 관하여 1991. 7. 9.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신상규는 검찰주사(보) 신인섭을 참여하게 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다시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린즉 신문에 따라 진술하겠다고 대답하다.

문 : 피의자가 전화에 진술한 것은 사실대로 인가요.

답 : 네,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문 : 피의자는 어제(7. 8.) 1020호 검사실에서 변호사 김창국 외 2인과 만났지요.

답 : 네, 그렇습니다.

문 : 피의자는 그 자리에서 변호사들에게 전민련측에서 제출한 수첩이 변조되어 있으며 유서도 김기

피 의 자 신 문 조 서		(제 6 회)
성 명	강 기 훈	주민등록번호
위의 사람에 대한 자살방조		
피의사건에 관하여	1991. 7. 9.	
서울지방검찰청	에서	
검 사	신 상 규	는(은)
검찰주사(보)	신 인 섭	를(을)
참여하게 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다시 진술 거부권이 있음을 알린즉 신문에 따라 진술하겠다고 대답하다.		
문	피의자가 전화에 진술한것은 사실대로인가요	
답	네,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문	피의자는 어제(7. 8.) 1020호 검사실에서 변호사 김창국 외 2인과 만났지요	
답	네, 그렇습니다.	
문	피의자는 그 자리에서 변호사들에게 전민련측에서 제출한 수첩이 변조되어 있으며 유서도 김기철의 글씨가 아니고 역립된것 같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제가 지금까지 조사받은 문서 업무일지, 전민련수첩, 유서 그리고	

2003-237(2-1)인
81. 12. 21 승인

(피의자신문조서42)
150mm×268mm
(성인용사42/4)

등사본정임김기훈

설의 글씨가 아니고 대필된 것 같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제가 지금까지 조사받으면서 업무일지, 전민련 수첩, 유서 그리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김기설의 글씨 등을 보고서 수첩이 변조되었고 유서도 김기설이 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문 : 전민련측에서 김기설의 필적이라며 제출한 사회국 업무일지의 글씨는 누구의 글씨라고 생각하는가요.

답 : 첫째장은 전민련에서 민자당 일당독재분쇄와 민중기본권쟁취 국민연합(약칭 국민연합)에 파견되어 있는 이동진의 글씨이고 둘째장의 글씨중 파란색 볼펜으로 기재되어 있는 "4/19 4월혁명 기념대회 준비"라는 한 줄은 전민련 사회국 부장으로 있는 임무영의 글씨라고 생각되며 나머지 연필로 기재되어 있는 글씨들과 셋째장의 연필로 기재되어 있는 글씨는 누구의 글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 :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둘째장과 셋째장의 연필로 쓰여진 글씨들은 피의자 자신의 글씨라고 감정되었는데 피의자가 유서가 대필된 사실을 감추기 위해 검찰에 위 업무일지를 제출한 91. 5. 11. 12:00 이전에 피의자가 업무일지를 새로이 기재하지 않았는가요.

답 : 그렇지 않습니다.

문 : 피의자는 5. 10. 낮에 종로 5가에 있는 전민련 사무실에서 김현수, 김형민 등과 함께 위 업무일지를 찾아내어 같이 살펴본 사실이 있는가요.

답 : 네, 그런 일이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지금 안전기획부에 구속되어 있는 김형민이 지난 7. 5. 위와 같은 사실을 진술하기 전까지는 업무일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는지요.

답 : 네, 제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김형민이 잡혀오기 전까지는 5. 10.에 전민련 사무실에서 김현수 등과 같이 업무일지를 찾아내거나 또 업무일지를 살펴본 일이 없고 그밖에도 검찰에 올 때까지 업무일지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은 맞습니다.

문 : 피의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겨온 이유는 바

로 피의자가 업무일지를 검찰에 제출하기 전에 피의자의 글씨로 다시 작성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계속한 것이 아닌가요.

답 : 제가 5. 10.에 전민련 사무실에서 김현수가 찾아낸 업무일지를 들여다본 것은 사실인데 제가 유서나 업무일지 그리고 수첩 등의 글씨를 쓴 사람으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5. 10.에 업무일지를 본 사실을 시인하면 저에게 불리할 것으로 생각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습니다.

문 : 피의자는 위 업무일지를 찾아낸 시각이 언제 인 것으로 기억하는가요.

답 : 저와 김현수 등이 전민련 사무실에 있을 때 김현수가 김기설이 사용하던 책상에서 업무일지를 찾아내었는데 5. 10. 낮으로 기억이 되며 김형민의 말을 들으니 그날 11:00쯤이라고 합니다.

문 : 피의자는 5. 10. 위 업무일지를 찾아낸 후 이를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5. 11. 아침 10시에서 11시쯤 업무일지를 가지러 온 전민련 조국통일위원회 부장 정윤서에게 넘겨주었는가요.

답 : 저는 5. 10.에 업무일지를 본 일은 있으나 제 일이 바빠서 업무일지를 보관한 사실도 없고 또 5. 11.에 그 업무일지를 정윤서에게 넘겨 준 사실도 없습니다.

문 : 위 정윤서의 진술에 의하면 5. 11. 오전에 종로 5가에 있는 전민련 사무실에 가서 피의자로부터 업무일지를 넘겨 받아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3층에 있는 강경대 대책위 사무실에 갔다주었다는데 왜 피의자는 위와 같은 사실을 부인하는가요.

답 : 저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정윤서가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 피의자는 업무일지를 5. 10.에 본 일도 없었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는데 피의자가 업무일지를 새로이 작성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5. 10.에 업무일지를 보관한 사실이나 또 5. 11.에 정윤서에게 넘겨준 사실도 없다고 거짓 진술한 것이 아닌가요.

답 : 그렇지 않습니다.

문 : 피의자는 언제 어디서 왜 김기설의 유서를 작성하였는가요.

답 : 저는 김기설의 유서를 쓴 일이 없습니다.

문 : 피의자는 금년 들어 현재까지 서울을 떠나 지방에 다녀온 일이 있는가요.

답 : 금년 들어 1월 말경 눈이 쌓여 있을 때 전민련 사무실의 상근자들이 원주와 치악산을 다녀온 적이 있었으나 저는 다른 일이 있어서 같이 가지 못하였고 2월 말경에 3, 4일쯤 대구, 부산, 진주, 광주, 전주 등을 둘러 전산교육을 하고 서울로 온적이 있으며, 3월 말경 출장을 겸하여 여수 오동도에 하루 동안 놀러 갔다는 일이 있을 뿐 4월과 5월에는 서울을 떠난 일이 없습니다.

문 : 피의자는 대학교 후배이며 피의자의 여자친구인 이영미와 가까운 친구 사이인 홍성은양을 5. 5.에 한 차례, 5. 10.에 두 차례, 5. 12.에 또 한 차례 만난 일이 있었는가요.

답 : 네, 제가 5. 5. 저녁에 홍성은과 이영미와 김진수를 함께 만나 5. 6. 새벽 0시 30분까지 술을 마신 일이 있고, 또 5. 10. 오후 3,4시경 종로 5가에 있는 봉주르카페에서 홍성은과 만나 한 시간 가량 이야기를 한 적이 있으며, 그날 밤 10시쯤 종로 5가에 있는 도이취호프집에서 홍성은, 이영미, 김진수 등과 생맥주 3,4잔씩을 마신 일이 있고, 5. 12.에 김기설의 장례를 마친 후 서울로 돌아와 위 도이취호프집에서 위 세 사람과 같이 밤10시에서 11반경까지 생맥주를 마신 일이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5. 10. 오후 봉주르카페에서 홍성은과 만나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을 때 홍성은이가 5. 7. 밤에 김기설과 만나 그가 죽으려고 하는 것을 만류하였다는 사실과 그로부터 넘겨 받은 전민련 수첩을 5. 8.에 전민련 관계자에게 넘겨주어 그들이 보관하고 있음에도 수첩의 존재에 대하여 진술하지 말고 또 죽은 김기설과 홍성은양을 소개하여 준 것이 바로 피의자와 이영미양 두 사람이었는데도 이영미가 관련한 사실을 진술하지 말도록 홍성은에게 부탁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저는 그와 같이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홍성은에게 김기설이 죽기 전에 홍성은이 김기설과 만났을 때 김기설로부터 죽겠다는 말을 들었는지를 물어 보았으나 홍 양은 그런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하였었고 이영미의 문제는 제가 먼저 말한 것이 아니고 홍

양이 먼저 이영미의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저도 그렇게 하자고 말했던 것이고 김기설의 수첩에 관한 것은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문 : 5. 12. 밤에 위 네 사람이 도이취호프집에서 생맥주를 마실 때 김진수가 말하기는 이번 김기설 사건에서 홍 양을 기자회견에 내세운 것은 실수라고 말했을 때 피의자가 그 말을 듣고 "이미 엮여지려진 물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저는 그 자리에서 김진수가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을 들은 기억도 없고 또 제가 이미 엮여지려진 물이다라고 말한 사실도 없습니다.

문 : 그 자리에 있었던 홍성은의 진술에 의하면 분명히 김진수와 피의자가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을 똑똑히 들었고 같은 자리에 있었던 피의자의 여자친구 이영미양도 그 대화를 들었다고 하는데 피의자는 왜 부인하는가요.

답 :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문 : 피의자는 5. 7. 밤 늦게 홍 양이 전화를 하여 김기설의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불러주면서 기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버지에게 연락하여 주라고 하였다는데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답 : 네, 저는 그 날 밤 홍성은이가 전화를 하여 무슨 전화번호 하나를 받아 적으라고 불러주었던 사실은 기억나지만 그 전화번호를 적어 놓지 않았고 그것이 누구의 전화번호인지 왜 그 전화번호를 불러주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때 참고인 홍성은을 입실케 하고 피의자와 대질하여 신문이다.

참고인 홍성은에게

문 : 진술인은 옆에 앉아 있는 피의자를 알겠는가요.

답 : 저의 대학교 선배이며 일명 이현우라고 하는 전민련 부장 강기훈입니다.

문 : 진술인은 1991. 5. 13. 검찰에 처음 출두하였을 때 조사를 받으면서 김기설이와 5. 7. 밤에 만났을 때 그로부터 분신계획을 전해 듣고 진술인이 울면서 만류하였다는 사실과 그날 밤 김기설로부터 그가 가지

고 있던 수첩을 넘겨받았으며 그 수첩을 5. 8. 12:00경 이영미와 김진수가 있는 자리에서 이영미가 진술인에게 수첩을 달라고 하여 진술인이 그 옆에 있던 전민련 선전부장 원순용에게 넘겨준 사실 등을 감추고 진술하지 않다가 다시 소환되어 5. 16.에 검찰청에서 자술서를 쓰고 진술조서를 또 5. 17.에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서 증언을 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네, 제가 처음 조사를 받을 때는 일부 거짓 진술을 하거나 감추어 두고 말하진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검찰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다시 소환했을 때 사실대로 진술을 하고 판사 앞에서 증언도 한 일이 있습니다.

문 : 그러면 진술인의 자술서와 진술조서와 그리고 법원에서의 증인신문조서는 모두 진술인이 사실대로 직접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후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였는가요.

답 : 이때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진술인의 자술서(246, 422정), 76) 진술조서(248, 425, 566), 77) 증인신문조서(정) 78) 등을 진술인에게 제시하여 열람케 한 바,

답 : 보여주신 진술서는 제가 직접 사실대로 작성한 것이고, 진술조서와 증인신문조서도 제가 사실대로 진술한 후 도장을 찍거나 무인을 하고 서명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문 : 그러면 5. 13.에 처음 조사를 받을 때는 일부 거짓 진술을 하였지만 두번째 조사를 받으면서 5. 16.과 17.에 작성한 진술서, 진술조서, 증인신문조서의 내용들은 모두 사실대로 진술한 것인가요.

답 : 제가 기억하고 있는대로 사실대로 진술한 것입니다.

문 : 그러면 다시 물졌는데 먼저 5. 7. 밤 11시쯤 김기설과 헤어진 후 강기훈에게 전화하였을 때 무슨 전화번호를 왜 불러주었나요.

답 : 5. 7. 밤 제가 김기설의 분신계획을 듣고서 만류하여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는데 꼭 죽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않았지만 혹시나 하여 현우형(피의자 강기훈)에게 전화를 하면서 김기설의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받아서 적어 놓으라고 불러주고 김기설에게 무슨

76) 총자료집 I 책 98쪽, 178쪽 참조.

일이 있으면 연락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우형이 전화통화 중에 성은아, 성은아, 미안하다, 미안하다라고 하기에 강기훈이 이미 김기설의 분신계획을 알고 있는 것인지 또는 다른 일로 미안하다고 하는지 의아하였습니다.

문 : 진술인이 5. 8. 12:00경 연세대학교에 갔을 때 김기설의 수첩을 달라고 하여 가져간 사람은 누구인가요.

답 : 강기훈의 여자친구인 이영미와 강기훈의 대학친구인 김진수와 함께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1층 로비에서 이영미가 수첩을 가지고 있느냐고 저에게 묻기에 꺼내 주었더니 김진수 옆에서 있던 원순용(나중에 김진수가 민주동맹회의 한양대 출신 간사라며 이름을 알려주어서 알게 되었음)이 가져갔습니다.

문 : 진술인이 처음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수첩의 존재를 감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답 : 5. 8. 오후에 전민련 사람(나중에 임재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이 전화번호 부분을 카피하여 놓은 것을 보고서 그 옆에 있던 다른 전민련 사람에게 밖으로 이 수첩이 돌아다니면 안된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서 제가 김기설의 수첩을 넘겨준 일이 생각나기에 수첩을 돌려 받기 위하여 그 여자에게 수첩은 어떻게 됐냐고 물었을 때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수첩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고 말하였고 옆에 있던 김진수도 손을 내저으면서 말하지 말라는 신호를 하였는데 5. 9.에 제가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될 일을 걱정하였더니 김진수가 수첩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이영미의 이야기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으며 또 5. 10. 오후에 전민련 사무실 근처의 카페에서 강기훈과의 의논할 때 강기훈이 저에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쓸데없는 사람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말하기에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고 제가 영미 이야기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을 하자 강기훈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문 : 진술인은 5. 12. 밤에 장례를 마친 후 피의자

77) 총자료집 I 책 99쪽, 178쪽, 282쪽 참조.

78) 총자료집 I 책 188쪽 참조.

강기훈과 생맥주를 마신 일이 있는가요.

답 : 네, 장례를 마치고 밤 10시쯤 종로 5가에 있는 도이취호프에서 저와 강기훈과 이영미, 김진수 등 넷이서 생맥주를 마신 일이 있습니다.

문 : 그 자리에서 피의자 강기훈이 "이미 잊어버린 물이다"라는 말을 하였는데 그 경위를 말하여 보시오.

답 : 김기설의 장례를 마치고 나서 김기설에 대한 이야기와 저를 위로하는 말이 오갔는데 김진수가 말하기를 자기가 박래전 사건이나 단국대학교의 최덕수 분신사건이나 직·간접으로 지원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성은이를 내세운 것이 최대의 실수였다고 말하자 옆에 있던 강기훈이 "이미 잊지려진 물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영미도 그 자리에서 함께 들었습니다.

문 : 진술인은 5. 8. 오후 봉주르카페에서 강기훈을 만났을 때 피의자 강기훈이 김기설에 대하여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한 사실을 들었는가요.

답 : 네, 그 자리에서 강기훈이 죽은 김기설이 학력, 경력 등을 감춘 사실에 대하여 기분이 나쁠 때 문인지 몰라도 배신감을 느꼈다고 하였으며 전민련에 있는 원순용도 더욱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는 말을 강기훈이 저에게 한 일이 있습니다.

문 : 진술인은 5. 5. 밤에 강기훈과 만났을 때 강기훈이 김기설의 안부를 물으며 좋은 사람이니 잘 사귀어 보라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었지요.

답 : 네, 그렇습니다.

문 : 5. 10. 오후에 봉주르카페에서 강기훈이 말하기를 김기설이가 죽기 1주일전부터 그와의 사이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였었지요.

답 : 네, 그렇습니다.

문 : 그러면 5. 5.에는 좋은 사람이라며 잘 사귀어 보라고 말한 강기훈이가 5. 10.에는 말하기를 김기설이 죽기 1주일전부터 사이가 나빴었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되지 아니한가요.

답 : 저도 그 점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문 : 5. 10. 봉주르카페에서 피의자 강기훈이 진술인의 수첩에 김기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써준 일이 있었는가요.

답 : 기억이 확실치 않습니다.

문 : 진술인은 5. 16.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진술인의 수첩에 써 있는 김기설의 이름 석자와 전화번호는 김기설이 써준 것이 아니고 5. 10. 봉주르카페에서 강기훈이가 써준 것이며 죽은 사람을 빨리 잊어버리라고 말한 강기훈이가 죽은 김기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진술인의 수첩에 써줄 때 한편으로 불쾌하고 한편으로 이상하게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지 않았는가요.

답 : 네, 제가 그렇게 진술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문 : 진술인은 5. 17.에도 판사 앞에서 선서하고 증언할 때 역시 똑같은 진술을 한 일이 있었지요.

답 : 네, 그렇습니다.

문 : 그러면 5.10. 봉주르 카페에서 피의자가 써준 것이 틀림없지 아니한가요.

답 : 제가 그와 같이 기억하고 진술을 하였는데 집에 가서 곰곰히 생각하여보니 누가 써주었는지 혹은 제가 모르는 사이에 누가 제 수첩에 써 놓은 것인지 기억이 확실치 않습니다.

문 : 피의자 강기훈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5. 7. 밤에 진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나 김기설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불러주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여 달라고 한 대화를 기억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 5. 10.에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네, 아니 오를 분명히 하고 강압수사를 하더라도 의연히 대처하라고 말하였을 뿐이며 또 5. 12. 밤에 김진수가 "최대의 실수"라는 말을 하였다거나 또는 피의자 자신이 "이미 잊질려진 물이다"라는 말을 한 기억이 없다는 등 진술인과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요.

답 : 저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며 왜 강기훈이가 저와 다른 기억을 하거나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때 다시 피의자와 문답하다

피의자 강기훈에게

문 : 피의자는 옆에 있는 홍성은을 알고 있는가요.

답 : 대학교 후배인데 이영미와 가까운 친구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홍성은입니다.

문 : 피의자는 참고인 홍성은이가 하는 말을 들었는가요

답 : 네, 모두 들었습니다.

문 : 참고인 홍성은이가 피의자 보는 앞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하고 있는데도 피의자는 이를 부인하거나 달리 진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의 기억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문 : 만약 그렇다면 참고인 홍성은이가 피의자의 주장과 다른 진술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특별히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이해관계나 감정관계가 있으면 말하여 보시오

답 : 홍성은이가 왜 저와 다른 말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또 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다시 참고인 홍성은과 문답하다

참고인 홍성은에게

문 : 진술인은 5. 16과 17. 검찰과 법원에서 진술할 때 진술인의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김기철의 이름 석자와 전화번호 등은 강기훈이가 5. 10. 오후 봉주르카페에서 적어 넣은 것이라고 분명히 진술하였지요

답 : 네, 제가 그때 그와 같은 진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문 : 그런데 이제와서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제 기억이 지금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 : 진술인은 이미 검찰과 법원에서 사실대로 진술을 하고 나서 이제 강기훈과 대질조사를 받게 됨에 있어서 강기훈에게 너무 불리한 진술을 많이 한 것 같아 강기훈과의 인간관계상 또는 진술인과 친한 친구인 강기훈의 여자친구 이영미를 생각해서 입장이 난처하여 기억이 확실치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요

답 : 제가 지난번 조사를 받을 때는 강기훈이가 쓴 것으로 기억하고 진술하였었는데 그후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았더니 강기훈이가 쓴 것인지 아니면 누가 쓴 것인지 기억이 확실치가 아니하여 그대로 대답한 것입니다.

문 : 참고로 더 할 말이 있는가요

답 : 없습니다.

이때 피의자 강기훈에게 문답하다

피의자 강기훈에게

문 : 참고인 홍성은이가 하는 말을 들었는가요

답 : 다 들었습니다.

문 : 참고로 더 할 말이 있거나 피의자에게 유리한 진술이나 증거가 있으면 말하여 보시오

답 : 5. 7. 밤에 제가 홍성은과 전화하였을 때 "성은아 미안하다"라고 한 것은 제가 그 전전 날인 5. 5. 밤에 술이 취했던 일에 대하여 미안하다고 기억하는데 그런 말이 있었는지 홍성은에게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때 참고인 홍성은에게

문 : 강기훈의 말을 들었으면 대답하여 보시오

답 : 제가 5. 7. 밤 강기훈과 통화할 때 강기훈이 저에게 "성은아, 성은아, 미안하다 미안하다"라고 말하기에 저는 무엇이 미안하다는 것인지 영문을 몰랐고 술에 취한 일에 대한 사과라는 생각이 들만한 대화는 없었기 때문에 제 마음속으로는 혹시 강기훈이가 김기철이가 그 다음날 아침에 분신할 계획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다시 강기훈에게 문답하다

문 : 피의자가 참고로 더 할 말이 있으면 말하여 보시오

답 : 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 대로 오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무인케 하다.

진술자 홍성은 · 강기훈

1991. 7. 9.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신상규

검찰주사(보) 신인섭

☐자료 가-1-151 (수사기록 981)

서울지방검찰청

수신 검사 신상규

1991. 7. 9.

제목 수사보고

이건 피의자 강기훈에 대한 자살방조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에게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의 동의 여부를 문의한 바, 동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변호인들과 상의하여 결정하겠다고면서 동 검사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보고합니다.

강력부 제1020호 검사실

검찰주사 신인섭

대한검찰총서

서울지방검찰청 수사부

91년 7월 11일

자료 가-1-153 (수사기록 983~992)

피의자 신문조서 (제 7 회)

성명 강기훈 주민등록번호 ()

위의 사람에 대한 자살방조 피의사건에 관하여 1991. 7. 11.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신상규는 검찰주사(보) 신인섭을 참여하게 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다시 진술 거부권이 있음을 알린 즉 신문에 따라 진술하겠다고 대답하다.

문 : 피의자가 전화에 진술한 것은 사실대로 인가요

답 : 네,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문 : 피의자는 1991. 4. 26. 강경대군 치사사건이 발생하던 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언제 그 소식을 들었는가요

답 : 4. 26.에 강경대군 사망소식을 알게 된 것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하여 알게 되었을 것이며 평소대로 출근하여 전민련 사무실에 있다가 저녁에 귀가하여 집에서 잤습니다.

문 : 4. 27.부터 5. 8.까지 어디서 무엇을 하였으며 잠은 어디서 잤는가요

답 : 제가 기억하기에 4. 27.부터 5. 8.까지 날마다 정상출근하여 종로 5가에 있는 전민련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정상퇴근하여 저의 집에 가서 잔 것으로 기억하며 특별히 기억나는 일은 4. 29.과 5. 4.에는 각각 무슨 규탄대회와 백골단 해체의 날로서 집회 및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날의 상황정리를 하느라고 매우 늦게 밤 12시에서 새벽 1시쯤 귀가하였습니다.

문 : 피의자가 정상출근, 정상퇴근이라고 하는 것은

피의자 신문조서 (제 7 회)

Table with 2 columns: Question (문) and Answer (답). Contains details of the interview, including dates and locations.

2003-237(2-1) 11월 11, 12, 21 순인 (피의자신문조서) 150mm X 226mm (인공종이 54g/㎡)

몇 시쯤을 가리키는가요

답 : 평소 때 9시반쯤 사무실에 도착하여 저녁 7시에서 8시쯤에 집으로 들어갑니다.

문 : 그러면 위 기간 동안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낮에 지방출장이나 시내 심부름을 다닌 일도 있는가요

답 : 저는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컴퓨터를 통한 전국 통신망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지방출장이나 시내 심부름을 갈 틈은 없고 가는 일도 없습니다.

문 : 그러면 위 기간 중에는 계속하여 서울에 있었고 낮에는 전민련 사무실에서 일하였으며 밤에는 피의자의 집에서 잤다는 말인가요

답 : 네, 그렇습니다.

문 : 4. 27.에 소위 강경대군 장례 및 대책위가 구성되었다는데 피의자는 전민련 사무실에서만 근무하고 대책위가 있는 연세대학교에는 가지 아니하였는가요

답 : 4. 27.에 김기설 등 전민련 실무자들 7명이 연세대에 있는 대책위에 파견되었고 저는 사무실에서 내근할 사람으로 정하여졌기 때문에 4. 27.부터 5. 8.까지는 연세대학교에 간 일이 없으며 5. 8. 오후 2시쯤 김기설 군 빈소가 차려진 곳에 분향을 하러간 일이 있을 뿐입니다.

문 : 김기설이 사망한 후인 5. 9, 10, 11.에는 어디서 무엇을 하였는가요

답 : 5. 9.과 10.에도 정상출근하여 사무실에서 일하였고 5. 9.은 집회관계로 늦게 퇴근하였고 5. 10.에는 김기설 추모회에 갔다는 홍성은, 이영미, 김진수 세 사람이 종로 5가로 와서 기다리기에 밤 10시쯤 사무실에서 퇴근하여 그 세 사람과 생맥주를 마신 후 밤 1시쯤 집에 들어갔습니다.

문 : 5. 11.에 대하여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말하여 보시오

답 : 5. 11.에는 그동안 피곤하고 또 전날 밤에 술도 한잔하였기 때문에 평소보다 조금 늦게 10시 반이나 11시쯤 출근하였다가 일찍 귀가하였습니다.

문 : 5. 12.에는 김기설군의 장례를 마친 후 홍성은, 김진수, 이영미 등과 생맥주를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고 진술하였지요

답 : 네, 그렇습니다.

문 : 5. 13, 14, 15.에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디서 잠을 잤는가요

답 : 5. 13.에는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밤에는 신촌에 있는 주점에서 이영미, 김진수, 방수연, 이정 등과 만나 술을 마시고 성은이 걱정도 하다가 밤 12시가 다 되어 김진수와 함께 전민련 사무실에 가 잠을 잤고 5. 14, 15.에도 별일없이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전민련 사무실에서 잤습니다.

문 : 피의자는 4. 27.부터 외박하는 일이 없이 집에 들어가서 자다가 5. 13, 14, 15.에는 계속하여 집에 들어가지 않고 전민련 사무실에서 잠을 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 그 당시 사무실의 일이 바쁘기도 하였고 또 김기설의 분신사건으로 정서적으로 황폐하여 사무실에서 술을 한잔씩 하게 되어 그러다보니 집에 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문 : 그 기간 동안만 특별히 바빴을 리도 없는데 김기설이 사망한 직후인 5. 8, 9, 10, 11, 12.에는 별일 없이 귀가한 사람이 왜 여러 날이 지난 5. 13.부터 집에 들어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잠을 잤다는 말인가요

답 : 5. 12.에 장례식을 치르고 난 후 죽은 김기설에 대하여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문 : 피의자는 5. 13. 홍성은이가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기 시작하자 피의자의 범행이 들어나고 추적을 받을까 두려워 바로 홍성은이 조사를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된 5. 13. 밤부터 집에 들어 가지 못한 것이 아닌가요

답 :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 : 그러면 5. 13, 14, 15.에 누구와 같이 사무실에서 잤는가요

답 : 사무실을 함께 쓰는 노은협 사람들이 3,4명씩 있었고 김진수는 계속 같이 잤고, 김형민과 김현수도 1일이나 2일은 함께 잤을 것입니다.

문 : 김진수는 노은협 소속도 아니고 전민련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계속하여 피의자와 함께 전민련 사무실에서 잠을 잤는가요

답 : 그 친구는 술도 좋아하고 정이 많아 걱정이 되어 날마다 사무실에 와서 같이 지냈습니다.

문 : 김기설이가 죽었다거나 홍성은 등이 조사받는다 하고 하여 김진수가 특별히 피의자를 걱정하여 같이 있어 주어야 할 이유라도 있는가요

답 : 없습니다.

문 : 피의자는 김진수가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찾고 있던 5. 15.경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자기집에 들어가지 않고 도망다니는 이유를 알고 있는가요

답 : 잘 모르겠습니다. 짐작하기에 검찰에서 조사받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문 : 피의자는 5. 16, 17, 18.에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디서 잠을 잤는가요

답 : 5. 16. 낮에 집으로 전화를 하였더니 모르는 목소리의 이상한 사람이 저를 찾는 전화를 하였다

하기에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고, 그날 밤 10시쯤 다시 집에 전화하였더니 어머니가 압수수색을 당하였다고 하시기에 밤 11시쯤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3층으로 가서 그곳에서 잤고, 5. 17.에도 연세대학교에서 지내다가 잤으며, 5. 18.에는 강경대군 운구행렬을 따라 시내를 다니다가 저녁 5시쯤 이대 로터리 근처에서 원순용, 박홍순으로부터 제가 유서대필자로 지목되었다는 국민일보를 전해받아 읽은 후 밤 9시반쯤 을겨간 명동성당으로 들어가서 잤습니다.

문 : 5. 18. 아침에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3층에 있던 여러가지 비품과 자료, 서류 등을 종로 5가에 있는 전민련 사무실로 옮길 때 피의자도 같이 운반하였는가요

답 : 저는 같이 운반하지 않았습니니다.

문 : 위와 같은 물건을 옮기고 보관하는 일은 피의자가 소속되어 있는 총무국에서 하는 일이 아닌가요

답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 : 5. 19.과 20.에도 명동성당에 있었는가요

답 : 저는 5. 18. 밤에 명동성당에 들어간 후 6. 24. 검찰에 출두할 때까지 한번도 성당밖에 나간 일이 없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전민련 업무일지를 찾아내어 검찰에 전달하였던 5. 10.과 11.에 전민련 사무실에 있었고, 또 5. 16.부터 5. 18. 아침까지 대책위가 있던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3층에 있었다는 말인가요

답 : 네, 그렇습니다.

문 : 그러면 5. 10.과 11. 사이에 전민련 사무실에서 사회국 업무일지를, 5. 16.에서 18. 사이에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3층에 보관되어 있던 김기설의 전민련 수첩을 각 조작한 것이 아닌가요

답 : 제가 5. 10.에 업무일지를 본 것은 사실이지만 김기설의 수첩을 본 일은 없으며, 위 두 가지를 조작한 일도 없습니다.

문 : 피의자는 4. 26. 강경대 치사사건 발생 후 각종 집회에서 반정부투쟁 분위기가 고조되자 그 열기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분신 등의 방법으로 도화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의 뜻에 동조하고 유서를 대신 써준 후 필적이 문제되자 유서대필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회국 업무일지와 김기설의 전민련 수첩을 조작한 것이 아닌가요

답 : 아닙니다.

문 : 피의자가 위와 같은 짓을 한 것이 아니라면 어쩌하여 검찰에 출두하지 않고 또 출두한 후에도 처음에는 진술거부, 시필거부를 하고 또 진술을 시작한 후에도 5. 10. 전민련 사무실에서 사회국 업무일지를 본 적이 없거나 또는 홍성은양에게 이미 없지러진 물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거나 5. 7. 밤 홍성은양이 전화를 걸어 피의자에게 김기설의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불러준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등 거짓 진술을 계속하고 있는가요

답 : 저는 유서를 대신 써주지 않았는데, 검찰에서 유서대필자로 지목하기 때문에 출두를 거절하였었고, 같은 이유로 진술거부, 시필거부 등을 하였으나 조사를 받으면서 차츰 조작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진술을 하게 되었던 것이며, 업무일지를 본 사실을 숨긴 이유는 의심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업무일지를 보았다는 사실 자체가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홍성은이 말하는 부분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문 : 피의자와 함께 만난 홍성은, 이영미 등의 문제를 의논하였던 방수연, 김진수가 여지껏 자기집에 들어가지 않고 도망다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요

답 : 저는 이 문제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왜 도망다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문 : 피의자에게 유리한 진술이나 증거가 있으면 말하여 보시오

답 : 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 대로 오거나 중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단한 후 무인케 하다.

진술자 姜 基 勳

1991. 7. 11.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신상규

검찰주사(보) 신인섭

◎ 91년 7월 12일 ◎

☐자료 가1-154 (993~998)

자 술 서

본 적 서울시

주 소 서울시

성 명 최 재 인 (崔在仁)

직 업 없음.

주민등록번호

1. 본인이 전민련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6월부터입니다. 학교 선배인 박홍순씨의 소개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에는 '국제협력위원회'에서 일하기 시작하였으나 90년 7월 (인지 8월인지 잘 기억이 안남)경 당시 국제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명식씨가 그 분이 저술한 책으로 인해 '이적표현물제작' 혐의로 구속되면서 특별한 부서없이 사무실내에서 주어지는 일을 해왔다. 특히 작년 11월경 어머니께서 다리와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여 올 4월까지의 전민련에 나가질 못했다. 올해 4월 중순경부터 다시 전민련에 나가면서 편집실로 업무를 배치받아 지금까지 편집실원으로 일해오고 있다.

김기설씨는 내가 집안일 때문에 못 나갔던 기간 동안에 새로 전민련에 일하러 온 사람으로 처음 인사를 나는 것은 1월경에 오랜만에 전민련 사무실에 들었을 때 나누었지만 그냥 이름만 서로 안 정도였다. 4월달에 내가 일을 다시 시작했을 때에 다시 인사하고 여러 사람과 식사 등을 할 때 같이 식사한 적이 있는 정도이다.

강기훈씨는 작년 6월에 일을 시작할 때 이미 전민련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그래서 그때부터 알게 되었다.

나머지 임무영, 김현수, 박선옥, 김형민 등도 모두 강기훈씨와 같이 내가 전민련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알게 되었다.

정윤서씨는 작년 8월 범민족대회기간 동안에 전

민련 사무실에 와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알기 시작했다.

원순용씨는 내가 집안 일 때문에 쉬기 시작해야 하는 시기경에 전민련 사무실에서 일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부터 알기 시작했다.

1. 본인이 수첩을 인계받은 것은 경우가 이렇습니다.

낮(정확한 시간은 기억할 수 없음. 12시에서 2시 사이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됨)에 원순용씨로부터였다. 당시 상황은 연세대 학생회관 4층(3층인지도 모른다) 총학생회실 옆방에서 전민련 관계자들과 학생들이 분신소식을 듣고 놀라서 모여 있는 상황이었다 (나도 5월 8일 아침에 김형민씨로부터 김기설씨가 분신하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 있으니 빨리 가보라고 해 급히 연세대학교로 달려갔고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이미 영안실에 김기설씨가 안치돼 있다는 소리를 연세대학교 학생(이름을 잘 모름)으로부터 듣고 당시 '대책위원회' 상황실이 설치되어 있던 연세대학교 학생회관으로 곧장 갔었다). 김기설씨 분신소식을 듣고 달려온 전민련 관계자들을 총학생회실 옆방에 모여 놀람과 슬픔을 나누고 있었다. 그 자리에는 서준식씨, 김선택씨, 황인성씨, 최규성씨, 인제근씨, 이동진씨, 박홍순씨(그의 여러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 했으나 기억할 수 없음) 등이 있었다고 기억된다. 이 자리에 원순용씨가 김기설씨의 수첩이라고 하며 수첩을 내밀었고 그 자리에 있던 여러 사람이 그것을 둘러 보았다. 그러다가 지금 내 기억으로는 정확치 않는데 김선택씨 아니면 최규성씨 둘 중의 한 사람이 김기설씨 관련 자료를 나보고 보관해 두라고 해서 서류봉투 하나에 넣어가지고 보관하기 시작했다. 서류봉투에 넣기 전에 누군가가 친구들 전화번호 적은 부분을 복사해서 여러명이 나눠 가지고 연락을 해야겠다고 해서 잠시 가지고 나가서 복사를 해온 일이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10분도 채 안된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복사했는지는 기억이 안난다. 당시 하도 여러 명이 왔다갔다 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기억할 수가 없

다. 수첩에 대해선 수첩이 너털너털하고 지저분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외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수첩이 든 서류봉투를 가지고 있다가 다음날(5월 9일) 낮(시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오후 2시 전후한 시간이었을 것 같음)에 이도례씨(이보은씨)가 보관하고 있던 자료박스에 넣어두었다. 그리고 이보은씨에게 김기설씨 관련자료를 자료박스 안에 넣어둔다고 말을 했다. 자료박스 안에 서류봉투를 넣을 때에는 지금 내 기억으로는 수첩과 함께 김기설씨 영정사진(이것은 민족사진흥연구소에 있는 사람(이름은 잘 모르는 사람)에게서 받았다), 주민등록증(이것은 당시 총학생회실 옆방에서 함께 앉아 있던 사람들 중 누군가가 보관하라고 주었는데 누가 주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난다), 김기설씨 분신과 관련해 발표한 전민련의 성명서(책상 위에 여러장 있길래 봉투 안에 내가 몇장 넣었다) 등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본인은 5월 8일부터 5월 9일 낮에 자료박스 안에 서류봉투를 넣어둘 때까지 그 서류봉투를 가지고 연세대 총학생회실에 있었다.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가 유명을 달리한 상황에서 하루는 연세대에서 있으면서 필요한 일들을 해줘야겠다고 생각해 학생회실에서 밤을 세웠으며 다음날 낮에 보관하던 자료를 자료박스 안에 넣어두고 귀가했다.

1. 본인이 명동성당에 갔던 것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신문에서 강기훈씨가 자진출두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본 다음날이었던 것 같다. 박선욱씨와 함께 강기훈씨가 출두하기 전에 가서 인사라도 하고 오자며 명동성당에 약 오후 5시 30분경에 들어갔으며 여섯시 조금 지나서 나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명동성당 문화관 강당으로 들어가서 강기훈씨, 서준식씨, 한상렬씨, 이동진씨, 박홍순씨 등을 만나서 건강 등의 안부를 묻고 힘내라고 한 뒤 박선욱씨와 명동성당을 나왔다.

1991년 7월 12일
진술인 최재인

☐자료 가1-155 (수사기록 999~1013)

진술조서

성명 최재인(崔在仁)
주민등록번호 3
주거서울 (전화 :
본적서울 :
직업무직 연령 25세 1966. 2. 3생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1991. 7. 12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하다.

1. 본인은 1988. 2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1. 그뒤 1990. 6경부터 같은 학교선배인 박홍순의 권유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회에 가입하여 국제협력위원회 회원으로 일하다가, 91년 4월 중순경부터 현재까지는 위 전민련 편집실 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 본인은 91. 5. 8 12:00부터 14:00경 사이에, 서울연세대학교 학생회장실 옆방에서, 전민련의 선전부장인 원순용씨로부터, 김기설씨의 수첩(전민련 수첩)을 넘겨 받아 약 하루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이른날인 1991. 5. 9. 14:00경 연세대학교 학생회실 옆방에 설치되어 있던 대책위 사무실에서, 당시 대책회의 자료를 관리하던 이보은씨에게 보관하도록 넘겨준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해 물으시면 모두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검사는 진술의 취지를 더욱 명료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의문답하다.

문 : 진술인은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회"의 일원으로 일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90. 6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전민련 국제협력회원으로 일을 하다가, 어머니의 병간호로 인해 그만두었습니다. 그뒤 91. 4 중순경부터 다시 전민련에 나가 일을 하게 되었는데 국제협력회가 아닌 편집실 요원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문 : 위 전민련에 가입하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요

답 : 저의 같은 학교 동양사학과 출신으로 2년 선배인 박홍순씨를 학교에 다닐 때부터 가까이 지냈었는데, 졸업 후 거의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90. 6경 우연히 전화 연락이 와서 박홍순씨를 만나게 되었는데, 자신은 현재 전민련 조직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저보고도 전민련에 들어와 함께 일을 해보자고 권유하여 평소에도 전민련의 활동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던 터라, 가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 : 국제협력회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였나요

답 : 우선 국제협력회에서 하는 일은 전민련의 활동을 해외에 알리는 업무를 맡아서 하는 곳인데, 저는 국제협력회 업무를 배우고 있는 과정에서, 국제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명식씨가 국가보안법 위반(이적 표현물 제작혐의)으로 90. 7. 인지 8월경에 구속되는 바람에 전혀 별다른 행동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문 : 91. 4 중순경부터 전민련 편집실 요원으로 일을 하였다고 했는데, 인원배치는 누가 어떤 절차로 하는 것이었나요

답 : 먼저 본인들의 의향을 들은 뒤, 가급적 본인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원하는 부서에, 전민련 의장이 배치하는 것입니다.

문 : 편집실 요원은 몇명이나 되었나요

답 : 기구 편제상에는, 편집부장, 차장, 그리고 요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실장은 공석이고, 차장은 오세중씨, 그리고 편집실 요원으로 저 한 사람입니다.

문 : 진술인이 편집실 요원으로 일한 뒤, 발간한 유인물이었나요

답 : 예, 전민련 신문 33호를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문 : 위 전민련에 상근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은 몇명이나 되며 누구 누구인가요

답 : 상근하는 직원은 약 10명이며, 제가 전민련에 가입할 당시에 보니, 강기훈, 정윤서, 임무영, 김현수, 박선욱, 김형민, 원순용씨 등이 일을 하고 있었고, 제가 어머니 병간호로 인해 사무실을 못 나게 된 90. 11. 이후로 김기설 등이 가입, 일을 한 것입니다.

문 : 진술인이 김기설을 처음 본 것은 언제쯤인가요

답 : 제가 김기설씨를 처음 본 것은 91. 1월경으로 특별한 용무없이 전민련 사무실에 들렀다가 김기설씨와 인사를 나누게 되었는데 김기설씨는 당시 사회부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며, 분신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사회부에서 일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 김기설씨와는 자주 접촉하였던가요

답 : 91. 4 중순경부터 전민련 사무실에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가끔 점심식사 등을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문 : 진술인이 김기설의 분신소식을 최초로 알게 된 것은 어떤 경로로, 언제쯤인가요

답 : 91. 5. 8 사무실에 출근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이니가, 오전 9시경쯤 되었을 것으로 기억되며, 전민련 조직부에서 일하고 있는 김형민씨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김기설씨가 분신을 하여 현재 연대 세브란스병원에 있으니 빨리 가봐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처음 소식을 접하게 되고, 곧바로 세브란스병원으로 달려가게 되었는데 연대 정문 앞에서 평소 안면 있는 학생을 만나, 상황이 어떠냐고 물었더니만, 이미 운명하여 영안실에 안치되었다고 하여, 영안실로 가지 않고, 학생회관에 있는 대책위 사무실로 가 있다가, 원순용씨로부터 김기설의 수첩을 인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 : 그럼 김기설의 수첩을 인계받은 것이 정확히 몇시경인가요

답 : 몇시였는지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고, 12시에서 2시 사이였을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 김기설의 수첩을 건네 받게된 과정을 다시 한번 자세히 말해보시오

답 : 제가 대책위 사무실에 가게 된 과정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형민씨로부터 김기설의 분신소식을 전해 듣고 곧바로 세브란스병원으로 가다가, 연대 정문 앞에서 평소 안면만 있는 학생으로부터 김기설씨가 이미 운명을 하여 영안실에 안치되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영안실로 가지 않고 학생회관(3층인지 4층인지 정확히는 모름)에 설치되어 있는 대책위 사무실로 갔더니만, 그곳에는 이미 연락을 받고 찾아온, 전민련 관계자들인 서준식, 김선택, 황인성, 최규성, 이재근, 이동진, 박홍순 등이 슬픔을 나누고 있었고, 그

의 학생회 간부들, 기자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당시 전민련 관계자들이 한 일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전민련 관계자들에게 전화연락을 취하였고 또 일부는 김기설씨의 약력 등에 대해 평소에 김기설씨와 자주 접촉한 사람들에게 문의를 하는 등, 당시의 사무실 분위기는 슬픔에 젖어 있는 한편, 상당히 어수선했었습니다. 그날 낮경(시간적으로는 12시부터 2시 사이쯤 됨) 저와 위 사람들이 거의 동그렇게 원을 형성하고 앉아서, 김기설씨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전민련 선전부장인 원순용씨가, 김기설씨의 수첩이라고 하면서 갖고 들어와 위 사람들에게 내밀자, 여러 사람들이 호기심에서 그 수첩을 둘러가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김선택씨인지 최규성인지 두분 중 한 명이 저를 부르면서 김기설씨의 관련자료를 보관하라고 하여, 제가 누구부터인지 수첩을 건네받았는데, 그 순간 누군가가 수첩 전화번호를 복사하여, 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알려줬다면, 수첩을 달라고 하여 건네주었다가 약 10여 분 후에, 복사를 마친 다음, 다시 저에게 가져왔기에 제가 수첩을 건네받아 대충 안을 훑어본 다음, 노란색 서류봉투에 넣어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뒤 약 1시간여 뒤에 민족사연구원 소속(얼굴은 기억이 나나 이름은 모름)으로부터 김기설의 영정사진을 2장인지 3장인지 건네받아, 위 수첩이 들어 있는 서류봉투에 함께 넣어 두었고 그뒤 조금 있다가 누구인지 기억은 나지 않으나 김기설씨의 주민등록증을 가져와 저에게 건네주기에, 수첩을 넣었던 봉투 속에 함께 넣어, 보관하고 있다가, 그 이튿날인 5. 9. 오후 2시를 전후하여, 대책위 사무실 구석에 설치되어 있는 대책위 자료박스 속에 위 김기설씨의 수첩 등이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넣으면서 이보은(일명 이도례)씨에게 김기설의 관련서류를 넣어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약 하루 동안, 김기설의 수첩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 : 김기설의 수첩을 복사한다고 하면서 가졌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답 : 누가 가져갔는지 정확한 기억은 나질 않으나 전민련 관계자들 중, 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제 생각으로는 이동진씨나 박홍순씨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정확한 것은 그 사람들에게 확인을 해보아야

알겠습니다.
 문 : 복사는 여러 장을 하였던가요.
 답 : 예, 상당히 여러 장을 복사한 것으로 압니다.
 문 : 복사한 것을 본 일은 있나요.
 답 : 본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짐작키로는 수첩에 기재된 주소와 전화번호를 복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문 : 진술인이, 김기설의 수첩을 서류봉투 속에 넣기 전에 한번 훑어본 일이 있다고 하였는데 상태는 어떠하였으며 기재된 내용은 어떤 것들이었나요.
 답 : 수첩은 상당히 낡아서 지저분한 것으로 기억되고, 전화번호를 기재한 부분이 서너장 된 것으로 기억됩니다.
 문 : 전화번호를 기재한 부분이 뜯겨져 있었나요.
 답 : 뜯겨져 있었는지의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문 : 수첩을 넣은 서류봉투는 어디서 구했었나요.
 답 : 대책위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노란 봉투였습니다.
 문 : 위 서류봉투는, 대책위 관련 자료박스에 넣으면서 이보은씨에게 인계하기 전까지는 줄곧 진술인이 소지하고 있었나요.
 답 : 예, 계속 제 옆에 놓아두었다가, 다른 방향으로 갈 때는 제가 들고 다녔습니다.
 문 : 수첩이든 봉투를 대책위 자료박스에 넣을 때, 그 박스에는 이미 다른 자료들이 많이 들어 있는 상태였나요.
 답 : 예, 다른 대책위 관련자료들이 많이 들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문 : 위 대책위 자료박스는 이보은양 혼자서 관리하는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그럼 그날 이후 줄곧 이보은양이 위 박스를 지키고 있었나요.
 답 : 제가 대책위 사무실을 나오기 전까지는 이보은양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문 : 그럼 자료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이보은양의 승낙하에 가져가는 것인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위 수첩이든 서류봉투를 이보은양에게 건네줄

때에 수첩이 들어 있다고 말을 해주었던가요.
 답 : 수첩이 들어 있다고 말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김기설 관련자료라고 하면서 건네준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문 : 위 수첩이 든 봉투를 이보은에게 줄 당시 봉투를 봉하였던가요.
 답 : 봉하지 않았습니다.
 문 : 위 수첩 중 전화번호를 복사한 것을 전민련 관계자가 수배자의 연락처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확히 말하면, 한상렬 의장의 은신처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면서 쫓는 것을 본 사실이 있는가요.
 답 : 그러한 것을 본 사실이 없습니다.
 문 : 진술인이 김기설 관련자료가 든 봉투 안에 주민등록증을 넣을 때, 그냥 봉투 안에 넣었는가요 아니면 수첩이나 다른 서류에 끼워 넣었는가요.
 답 : 제가 봉투를 열고 주민등록증을 그냥 집어 넣었던 것으로 기억되고 다른 서류 사이에 끼워 넣은 기억은 없습니다.
 문 : 진술인이 5. 9. 14:00경 위 봉투를 이보은에게 주고 난후 5. 12까지 사이에 다른 사람이 위 서류를 꺼내어 손을 댄 사실은 있는가요.
 답 : 제가 이 봉투를 관리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문 : 주민등록증을 진술인에게 갖다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답 : 누가 가져왔는지는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문 : 이보은양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은 위 봉투 안에 김기설의 수첩이나,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것을 모르고 받았고, 5. 12 오전 10시에 전민련 선전부장 원순용이 김기설의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비로서 그 봉투를 열어보았는데 당시 수첩 비닐카바 속에서 김기설의 주민등록증을 찾아내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김기설의 주민등록증을 수첩 비닐카바 속에 넣은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요.
 답 : 제 기억으로는 김기설의 주민등록증을 수첩비닐카바 안에 끼워 넣은 사실이 없습니다.
 문 : 위 수첩의 전화번호를 사본한 것은 어디에 있는가요.
 답 : 저는 5. 8. 낮에 사본을 본 사실은 있지만 현

재 그 사본들이 어디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문 : 위 수첩의 전화번호란 사본한 것을 연대 범대위 사무실에서 일괄수거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그 사본을 수거하였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문 : 진술인은 5. 8부터 몇일까지 연대 범대위 상황실에서 근무하였는가요.
 답 : 5. 8. 11:00부터 5. 9. 14:00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에는 집에 가서 쉬다가 5. 12. 07:00에 김기설의 장례식날이라 연대 범대위 사무실로 갔었습니다.
 문 : 5. 8. 검찰에서 땅 김기설의 평소 필적의 제출을 범대위와 전민련측에 요구하였는데 그러한 사실을 알았는가요.
 답 :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문 : 범대위 상황실에는 위 수첩이 있다는 것을 여러 명이 알았는가요.
 답 : 원순용, 최규성 또는 김선택, 그리고 이보은과 저 등이 알고 있었습니다.
 문 : 진술인은 5. 7. 범대위 상황실에서 근무하였는가요.
 답 : 전민련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문 : 진술인은 김기설이 분신을 기도한다는 것을 5. 7.에 알았는가요.
 답 : 5. 7. 17:00경 전민련 사무실에서 퇴근하여 사전에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5. 8.에야 김기설이 분신하였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문 : 진술인은 명동성당에 간 일이 있는가요.
 답 : 예, 91. 6. 중순경에, 그러니까, 강기훈씨가 검찰에 자진출두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한 다음날, 명동성당에 간 일이 있습니다.
 문 : 무엇하러 갔던가요.
 답 : 강기훈씨가, 검찰에 출두하기 전에 인사나 하기 위해 갔던 것이며, 오후 5시 30분경 명동성당 문화관에 찾아가, 강기훈, 서준식, 한상렬, 이동진, 원순용씨 등을 만나 건강 등 안부를 물은 다음, 오후 6시가 조금 넘어 돌아온 일이 있습니다.
 문 : 진술인의 검찰의 출두요구를 받은 적이 있지요.
 답 : 예,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6. 24경 퇴근하여 집에 갔더니만 검찰청에서 수사관들이 저를 데리러

- 86. 9.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농성사건 주도혐의로 징역2년을 선고받고 마산교도소 등에서 복역하다가 87. 7. 8 가석방
- 88. 2. 민중의 당 성동지부 선전담당
- 88. 12. 혁명적 노동자 계급투쟁 동맹(혁노맹) 가입
- 88. 5. 전민련 가입

3. 조사착수 배경

김기설의 분신후 현장 검증 과정에서

- 동인의 분신타일이 이른 아침인 08:07경이고, 당시 서강대에는 아무런 집회가 없었던 상황이어서 여타 시국 관련 분신 사건이 시위 도중 또는 집회의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을때 행하여 진다는 일반적인 관례와 상이하고,
- 김기설의 분신 장소가 동인과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서강대학교 본관 옥상에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동인의 자살 과정에 제3자가 관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고,

김기설의 사체 검시 과정에서

- 김기설의 분신을 만류하였다고 주장하는 임근재의 진술에 의하면 당일 새벽 05:30경 동송동 마로니에 공원에서 김기설을 놓쳤다고 하여 동인이 분신 시점까지 유서를 작성하거나 시너를 구입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 당일 검찰이 안양에서 변사자 김기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긴급 입수한 동인 명의의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서상의 필적이 당시 검찰에 입수된 유서필적과 육안상 현저히 달라 김기설의 분신이 순수하게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의 의한 것이 아닌 듯한 점이 있었으며,
- 특히, 유족측에서 분신헌장에서 발견된 유서의 내용 및 필적에 관하여 강력한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김기설의 분신 자살사건에 타인이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본격적으로 내사에 착수하였음.

4. 강기훈을 유서대필자로 지목한 경위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현장검증 및 사체검시 결과, 유족의 진술, 참고인 임근재 등의 진술을 토대로 분신헌장 상황, 김기설의 분신행적, 김기설의 평소 친분관계, 주변인물의 행적 등에 관한 폭넓은 탐문수사를 전개하는 한편,

김기설 명의 유서의 자필여부에 대한 유족측의 의문 제기 등에 따라 김기설의 주변인물 등에 대한 필적을 광범위하게 입수하여 오던중 5. 8. TV기자회견을 통해 김기설의 분신자살이 단독결행인 것처럼 주장한 김기설의 여자친구 홍성은을 5. 13.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기설과 함께 전민련 간부로 근무하고 있는 강기훈이 김기설에게 대학 후배인 홍성은을 여자친구로 소개해 주는 등 특별한 친분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동인의 신원확인 및 필적 입수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동인이 1985. 가락동 민정당중앙정치연수원 점거농성사건으로 구속중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자술서의 필체를 발견하였으며 이를 유서의 필체와 대조한 바 육안상으로도 현저히 유사한 점이 발견되어, 5. 15. 강기훈의 자술서 필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필적감정을 의뢰한 결과, 유서 필적과 동일한 필적인 것

로 감정회보 됨에 따라서, 강기훈을 유력한 유서대필 혐의자로 지목하고 그 대필의 동기 내지 경위 등에 관한 수사를 전개하게 된 것임.

5. 조사결과

가. 유서대필에 관하여

유족측의 진술

- 김기설은 6세때 생모가 사망한 이래 큰 누나인 김화자의 집에서 학교를 다녀 평소 계모에게 정이 없었으므로 "어머니"라는 호칭을 사용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서내용에 "아버지, 어머니"만을 언급하고 누나들 특히 큰 누나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유서의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 김기설이 85년경 큰 누나 김화자에게 "아기 기르는 법" 책자를 선물하면서 자필로 기재한 필적을 임의 제출하면서 유서의 필적이 위 필적과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 김기설이 91. 4. 중순경 누나에게 "여자가 생겼으니 곧 결혼하겠다"고 말하여 유족들이 상의, 방을 얻어 주려고까지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자살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 유서는 김기설이 자필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음.

피의자 강기훈도 당초 검찰신문에 목비하다가 뒤늦게 유서의 필적이 김기설의 필적과는 다르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유서를 대필한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분신사건 발생 이후에야 텔레비전방송을 통해서 비로소 그 소식을 들었다고 범행 부인하고 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 결과에 의하면 유서 필적이 김기설의 평소 필적과는 상이하며, 피의자 강기훈의 자술서 및 강기훈 스스로 자필임을 시인하는 화학노트 등과 동일한 필적이 판명되었고,

김기설의 여자친구 홍성은의 진술에 의하면, 5. 7. 저녁 김기설로부터 다음날 분신자살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23:30경 강기훈에게 전화를 걸어 김기설의 부 김정렬의 전화번호를 불러주며 내일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강기훈은 홍성은에게 '미안하다' 라는 말을 3번이나 하면서 전화번호를 적지도 않는 등 이상한 반응을 보인 점으로 보아, 강기훈은 김기설이 분신하려 한다는 점을 그 전화 이전에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나. 수첩 등 필적조작에 관하여

수첩 등의 제출경위

- 참고인 홍성은의 진술에 의하면, 김기설은 분신 전날 자신이 평소 사용하던 수첩을 여자친구인 홍성은에게 넘겨주면서 자기가 죽으면 가족 친지들에게 연락해 주도록 부탁하였고 이 수첩은 분신헌장 전민련 간부 원순용에게 인계되었음.

- 그런데, 전민련측은 검찰의 김기설 자필필적 제출요구에 대하여 김기설의 행적과 필적이 담겨 있는 위 수첩을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영등하게 사회국 업무일지를 대신 제출하면서 위 수첩의 존재를 장기간 동안 은폐해 왔음.

- 전민련측은 검찰이 이 수첩의 존재를 뒤늦게 알고 수사례에 걸쳐 제출 요구를 하자, 무려 13일이나 지난 5. 20.에야 비로소 제출에 응하였으나 그와 같이 제출된 수첩은 김기설이 남긴 수첩 진본이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조하여 제출한 것으로 판명되었음

강기훈의 진술

- 이 점에 대하여, 피의자 강기훈은 수첩이나 업무 일지의 필적이 김기설의 필적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이를 조작하거나 이에 관련된 바는 부인하고 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 결과에 의하면 위 수첩의 필적은 김기설의 필적이 아니며, 피의자 강기훈의 자술서 및 강기훈이 자필임을 인정하는 화학노트 등과 동일한 필적이고, 수첩에서 찢어진 전화번호란 3매의 절취선이 잔류면과 중복 불일치하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참고인 홍성은의 진술

- 참고인 홍성은은 인재근, 김진수의 지시에 따라 검찰 1회 조사시 수첩의 존재를 묵비하였으나, 검찰 2회 조사시부터 수첩의 존재를 시인하면서 자신이 전민련측에 위 수첩을 넘겨줄 당시 위 수첩의 기재 형태, 필기도구, 기재내용, 찢겨진 부분 등의 성상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진술하였는데, 검찰에 제출된 수첩과 홍성은의 위 진술내용을 대조해 본 결과 수개 부분의 성상이 서로 다른 점에 비추어 검찰에 제출된 수첩은 홍성은이 김기설로부터 넘겨받아 전민련측에 넘겨준 수첩 진본이라고 볼 수 없고, 사후에 조작된 수첩으로 판단됨.

참고인 이보령 등의 진술

- 승의여전 학생 이보령등 3명도 4.18 김기설이 위 수첩에 메모하는 장면을 목격한 바 있는데 당시 목격한 필기도구와 제출된 수첩에 적혀 있는 필기도구가 서로 다르다고 진술하고 있어 검찰에 제출된 수첩은 사후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뒷받침됨.

사회국 업무일지의 조작 부분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전민련측에서 당초 업무수첩을 은폐하면서 김기설의 필적이라고 제출한 사회국 업무일지의 필적은 김기설의 자필 필적과는 상이하며 오히려 강기훈의 필적과 동일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 그 업무일지의 성격상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작성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제출된 업무일지는 필흔, 날자, 횡선 등 업무일지의 성상으로 보아 같은 날 한꺼번에 작성된 것이 역력함.

다. 범행은폐 기도에 관하여

피의자 강기훈은 김기설의 분신사건 후 홍성은, 이영미, 김진수 등과 회동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단순한 위로 모임이었을 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모임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홍성은의 진술에 의하면, 5.10. 15:30경 종로5가 소재 봉쥬르카페에서 강기훈과 단독으로 만났을 때 홍성은에게 "검찰조사를 받게 될 경우에, 예,아니오 등으로 간략히 답변하고 불필요한 말이나 불필요한 사람을 끌어들이지 말라"며 이영미의 존재등을 묵비하도록 암시하였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홍성은의 수첩에 김기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함으로써 검찰의 필적 오인을 유도하였고,

5.12. 22:00경 종로5가 소재 도이치호프집에서 홍성은, 이영미, 김진수와 회동하여 대화중 김진수가 "내가 박래전, 최덕수 등의 분신사건 때 장례를 직·간접으로 지원하였는데, 이번 사건에서 성은이를 등장시킨 것은 최대의 실수다."라고 말하자 강기훈이 "이미 앞질러진 물이다"라고 대꾸하였고, 이어 5.13. 22:30경 신촌시장내 상호불상 주점에서, 이영미, 김진수, 방수연, 이정 등과 회합한 자리에서 이영미가 검찰조사를 받게될 경우에 대비하여 "김기설과 홍성은이 만난 경위에 관하여 이영미는 관여한 바 없고, 강기훈과 이영미가 애인관계라는 사실은 시인하되 전민련에 관하여는 아는 바 없다."라고 진술하도록 지시하는 등 범행 은폐대책을 논의하였음.

6. 참고사항

강기훈이 검찰조사 도중 유서가 대필되었고, 수첩과 업무일지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되자, 이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유서를 대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전민련 사회부장겸 대변인인 임무영(27세)이 의심스럽다는 진술을 함에 따라 동 임무영을 조사한 결과 자살관여에 대한 특이한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음.

이 사건은 강기훈과 사망한 김기설 사이에 은밀히 이루어지거나, 소수의 전민련 관계자들 사이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일 뿐만 아니라, 강기훈이 오랜동안 명동성당에 농성하면서 구속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동안 여러 증거자료들을 조작해오다가 뒤늦게 검거된 다음, 검찰신문에 묵비 내지 무조건 부인하고 있고, 수사상 필요한 전민련 관계 중요 참고인들도 대부분 잠적하여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정 구금기간인 20일 동안에 유서대필의 일시, 장소, 경위 등 사건전모를 규명하는 데는 막대한 어려움이 있었음.

그러나 사망한 김기설의 유족들 진술에 의하면, 김기설은 1991. 4. 중순경 결혼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삶의 의욕을 보였다든 것임으로 김기설이 자살을 결심한 것은 그 이후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유서 내용으로 보아도 장래문제를 강경대군 사건 대책위에 위임한 점으로 보아 유서는 위 대책위가 발족한 같은 해 4. 27. 이후부터 분신자살 당일인 5. 8. 사이에 작성된 것이 명백하고, 위 기간동안 피의자 강기훈이 서울을 떠난 사실이 없으므로 유서작성 장소는 서울시내인 것 역시 명백하다 하겠음.

또한 유서내용으로 보아 피의자 강기훈은 단순히 유서를 대필해 준 것이 아니라 분신자살을 조국과 민중을 위한 행위로 미화하고 장례 등 모든 문제를 위 대책위에서 책임진다고 암시함으로써 김기설의 분신자살 결심과 결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자살방조죄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

대법원 판례도 "공소사실의 기재는 그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공소사실을 특정하는 방법으로서 가능한 한 그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였음에 불구하고 이것이 죄가 되는 사실 자체이기 때문이 아니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실 기재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기재 사실 등과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부적법한 공소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

앞으로 검찰은 기소 후에도 잠적한 참고인들의 소재를 파악, 조사하는 등 계속 수사하여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임.

■자료 가-3-34

강기훈씨 구속기소에 대한 우리의 입장

유서대필과 자살방조라는 터무니 없는 가설을 세워놓고 이를 짜맞추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온 검찰이 7월 12일 드디어 강기훈씨를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그동안 소위 '유서대필 사건'과 관련하여 처음부터 민족민주운동의 도덕성을 결코 당당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 밝힌다는 차원에서 업무일지 수첩 등을 관련자료를 검찰에 제출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수처에 걸쳐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여 왔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오히려 유서대필과 자살방조혐의를 덮어씌워 강기훈씨를 구속기소하는 것으로 귀결 되었으며 검찰은 수사의 전과정에서 불법적인 가족면회 불허, 잠안재우기 등의 밀실강입수사, 참고인들에 대한 강제연행과 장시간 구금, 서준식 인권위원장과 임무영 사회부장에 대한 보복구속 등 극히 비정상적인 수사로 일관하여 왔다.

검찰의 이번 강기훈씨에 대한 구속기소는 공권력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공정성마저도 내던진 채 유서대필사건을 조작함으로써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고한 한 개인을 철저히 재물로 이용한 비열하고도 명백한 범죄적 행위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강기훈씨를 기소하면서 강기훈씨에 대한 18일간의 이르는 밀실 강입수사를 통해서도 자백은 물론 유서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대필하였는지조차 밝혀내지 못했다. 이는 당연한 것이지만 검찰의 조작수사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더구나 검찰이 내세우는 혐의의 근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위 필적감정이라는 것과 96시간에 걸친 불법수사 이후 현재까지도 검찰에 의한 사실성의 감금상태에 있는 홍성은양의 진술뿐이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위 필적감정이 결코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이제 명백해 지고 있다. 박종철고문살해사건에서 여실히 증명되었다시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시국사건에 있어서 검찰의 조작수사에 과학성을 부여하는 수단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역시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3인의 필적이 담긴 것으로 확인된 업무일지가 김기설의 유서, 강기훈씨의 필적과 모두 동일하다고 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영터리 감정결과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강기훈씨에 대한 수사 막바지에 와서 검찰의 유서대필의 또다른 용의자로 임무영씨를 지목하여 수사해 온 것은 검찰 스스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믿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또한 검찰이 유력한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홍성은양의 진술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 검찰은 연약한 한 여성을 불모로 삼아 사건을 조작하려는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홍성은양의 자유로운 활동과 공개증언을 보장해야 한다. 홍성은양의 오늘까지 68일에 걸쳐 검찰에 의한 사실상의 감금상태에 있다는 자체가 검찰의 조작수사의 명백한 증거인 것이다.

이제 이 사건은 무고한 강기훈씨 한 개인의 양심과 인권의 문제를 넘어서 진실과 거짓, 양심과 비양심 세력간의 싸움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민련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현 정권의 비열한 조작 음모와 온갖 탄압 속에서도 오로지 진실을 무기로 진실과 양심의 승리를 믿는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며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움직임 수 없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음을 아울러 밝혀둔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불순한 정치적 동기로부터 출발한 현대판 드레퓌스사건임을 재판과정을 통해 명백히 밝힐 수 있다고 확신하며 아울러 사법부의 재판과정을 부릅뜬 눈으로 지켜볼 것이다.

만약 현정권이 파렴치한 유서대필 조작과 이를 빌미로 한 전민련과 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을 계속한다면 과거 권인숙양 성고문사건과 박종철군 고문살인은폐사건에서의 같이 자신의 운명을 파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마지막으로 검찰의 조작음모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진실과 양심이 승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격려를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이다.

1991. 7. 13.

전 국민족민주운동연합

● 91년 7월 14일 ●

□자료 가-3-35

보도자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전하 집기실의문신사건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박형규)는 7월 18일 오전 9:30분에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월 31일 본 조사위원회가 CCA(아시아기독교협의회)에 의뢰한 필적감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날 회견에는 CCA 국제위원장 겸무인 Clement John, 조사위원인 위원장 박형규목사와 김찬국교수, 송성우변호사등이 참석하였다.

본 조사위원회가 CCA에 의뢰한 문서는 집기실의 유언장(서본)과 전민권수첩(자본), 송이이전 메모(일본), 강기훈의 37년 목종지문(일본) 등 모두 9종이다.

CCA의 의뢰를 받아 필적감정을 수행한 인물은 大西芳雄(오니시 요시오)이라는 사람으로 1948년부터 1979년 정년퇴임시까지 동성공립박물관의 문부서관(고문서나 미술품을 감정, 수집, 정리하는 전문직)으로 일했으며, 1951년부터 경찰청이나 민호사가 의뢰한 필적감정에 종사하였다. 그는 1974년 일본경찰청 장립100주년 기념으로 필적감정부분에서 개인감사장을 수상한 바 있다(현재는 감정인협회 대표감정인-회장 직). 현재도 매년 30건의 형사, 민사재판의 필적감정을 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오니시 요시오의 필적감정 결과 집기실기가 작성하였다는 전민권수첩등 6종의 문서는 유사필적과 동일하며 강기훈의 1967년 목종서신과 1991년 5월 31일자 필적문 유서필적과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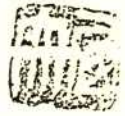
※ 첨부 : 필적감정서(한글 번역본) 1부
오니시 요시오 약력서 1부

1991년 7월 1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 권 위 원 회
집기실의문신사건진상
조 사 위 원 회
위원장 박형규



감정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아시아기독교협의회, 일본기독교협의회로부터 필적감정을 의뢰받아 신중히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달하였으므로 이에 회답합니다.

1991년 7월 9일

東京都杉並区上荻3-13-21

東京国立博物館名譽館員

大西芳雄

감정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아시아기독교협의회

일본기독교협의회

귀하

감정 사항

1. 하기(下記) 1의 유언서의 필자는 누구인가?

- ① 유언서 2통 (사본)
- ② 수첩 4장 (사본)
- ③ 강기훈(姜基勳) 본인의 옥중으로부터의 필적 2통
- ④ 강기훈 본인의 최근 필적 1통
- ⑤ 송의여전(宋義女專) 메모 1통
- ⑥ 방명록노트 (연필로 표시한 부분) 1통
- ⑦ 상량일지 (연필로 표시한 부분) 1통
- ⑧ 봉투 (연필로 표시한 부분) 1통
- ⑨ 이력서 1통 (사본)

위의 ②와 ⑤~⑧의 필적은 김기실(金基實)의 것이다.
 감정주문(鑑定注文) 및 이유의 본문에 나오는 감정자료는 위에 나오는 ○안의 숫자로 표시하기로 한다.

감정 주문

1. 유언서의 필적은 ② 및 ⑤~⑧을 쓴 김기실의 필적과 복색이 공통되고 있으며, 김기실이 직접 쓴 것이다.
 강기훈이 쓴 것은 아니다.

감정 이유

①의 2통의 유언서는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다.
 2통의 유언서의 필적은 폐선(霏線)이 없는 백지에 만년필과 같은 필기구로 사용하여, 횡서(橫書)로 씌어져 있으며, 맨 끝에 각각 서명이 되어 있다.
 필서의 각 행을 보면 2통 모두 가로 일직선으로 쓴 것과 말미를 상하로 올리거나 내린 것 등 도합 3가지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각 문절(文節) 및 각행간의 간격도 넓고 좁음의 차이가 명백히 나타나 있다.
 각 문자는 해서체(楷書體)가 아니라 속필(速筆)을 사용한 행서체(行書體)로 되어 있으며, 각 자획선(字畫線)에 주저함의 흔적이 전혀 없이 선(線)에 놓임이 있는 것이 인정된다.
 각 문자의 결체(結體)를 보면, 종선(縱線)을 하방(下方)으로 길게 늘이는 필법(筆癖)이 보이며, 일정한 길이로 가지런하게 되어 있지 않고 들쭉날쭉하게 쓰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각 자획선의 필법을 보면, 횡선(橫線)에서는 직선적 필치(直線的筆致)로 수평으로 쓰는 필법을 다용(多用)하고 있다. 종선에서는 직곡선적 필치(直曲線的筆致)로 수직방향 이외에도 좌하방(左下方)으로 사선(斜線)을 그어 내리는 두가지 종류의 필법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

감정자료의 김기실이 쓴 ②의 필적은 수첩 4장 중에서 앞의 2장은 전화 번호부, 뒤의 2장은 일기장과 같은 것으로, 여기에 볼펜류의 필기구로 그때 그때 필서로 각문자를 난잡하게 작게 쓴 것이다. 각 문자군(文字群)은 수평 아니면 극단적인 기울림(역주: 문장 말미가 위로 올라가도록 쓴 것)으로 씌어져 있으며, 해서체(楷書體) 또는 행서체(行書體)로 올려 쓴 것으로, 한번 쓴 것을 지우고 고쳐 쓴 흔적 등이 나타나 있다.
 자료 ⑤의 필적은 김기실이 송의여전의 총학생회장에게 써 준 집회의 일정에 모로시, 볼펜을 사용하여 급이 쓴 것으로, 각문자를 속필로 행서체로 올려

쓰고, 3개조(組) 중에서 최조의 2개조를 극단적인 굵을림으로 썼으며, 최후의 한 조는 완만한 각도로 쓰고 있다.

자료 ⑥의 필적은 방명록 용의 노트에 볼펜으로 속림을 사용하여 비교적 표박표박한 형서체로 쓰여져 있다.

자료 ⑦의 필적은 1989년 9월 25일의 행동을 일지로 쓴 것으로 각문자를 정성껏 해서체로 쓰고 있다.

자료 ⑧의 필적은 봉투 뒷면에 사인권으로 5문자를 필서로 쓰고 있다.

자료 ⑨의 이력서의 필적은 해서체를 사용하여 정성껏 쓰여져 있다.

김기실이 쓴 각문자의 필법을 보면, 필선에서는 직선적 필치로 수평으로 쓰는 필법을 다용하며 종선에서는 직곡선적 필치로 수직과 좌하방으로 경사하는 두가지의 필법을 운용하고 있다.

자료 ③과 ④는 강기훈이 옥중에서 쓴 2종의 봉함임서의 필적과, 1991년 5월 21일 편지지 1장의 앞뒤에 쓴 필적의 두 종류이다.

옥중에서 쓴 편지는 봉투의 소인이 1987년 6월 8일과 동년 5월 7일의 것으로 어느것이든 폐선이 있는 편지지에 볼펜으로 필서로 각문자가 쓰여져 있다. 별도로 같은 5월 21일에 폐선이 있는 종이에 볼펜으로 필서로 쓴 것은 어느 것이든 속림으로 정성껏 형서체로 쓰여져 있다.

3개조의 각문자의 배자(配字)를 보면, 작성연대와 관계없이 총량 10밀리미터의 크기로 크고작음의 호트러질이 없으며, 감정물건(鑑定物件)과 같이 말미를 상하로 치우치게 쓰는 것이 아니라 가로 일직선으로 쓰여져 있고, 문절간의 간격도 일정한 간격으로 정연하게 되어 있다.

각문자의 필법을 보면, 종선에서는 직선적 필치를 다용하여 수직과 우하방(右下方)으로 경사하는 필법을 사용하고 있고, 종림(縱筆)을 가압(加壓)하지 않고 빼쳐 내리는 필법을 사용하고 있다. 필선에서는 기림(起筆)시에 가압하여 빼치는 필법을 다용하고 있다.

이들 일련의 필적 중에서 특히 고유필법(固有筆法)을 사용하여 항상성(恒常性)을 나타내는 개성표현(個性表現)이 명확히 나타나 있는 것으로 이하의 검을 들 수 있다.

1) 「사선」(斜線)의 필법에 관하여

각문자의 최조의 제일획(制一畫)의 짧은 사선의 필법을 기본적으로 「하」 「하」 「하」 「하」와 같이 일반적으로 5가지로 분류되며, 이 사선을 직·곡선적 필치로 길고 짧게 쓰며, 여기에 필압(筆壓)의 가감이 작용하여 매우 변화된 필법을 사용하여 개성표현이 잘 나타나는 것이다.

이 개성표현의 필법의 구별을 찾아내는 것이 감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김기실이 쓴 자료 ②의 4장 중에서 사선의 필법을 「하」와 같이 기림을 가압하여 그대로의 필압을 유지한 채 우하방으로 짧게 내려긋는 필법이 44개조 중 34조에 나타난다. 반대로 「하」와 같이 우측에서 좌하방으로 동일 필압의 사선으로 내리는 필법이 44개조 중 10개로 있어, 양자의 필법을 운용하고 있다. 자료 ⑤에서는 우하방으로 사선을 내려긋는 필법을 7개조 중 5개조, 반대로 좌하방으로 사선을 내리쓰는 필법도 2개조를 포함하여 쓰고 있다. 자료 ⑥에서는 우하방으로 내려긋는 사선이 5개조의 사선 중 1개조 있을 뿐으로, 나머지 4개조를 「하」와 같이 좌하방으로 내려긋는 사선의 필법을 쓰고 있다. 자료 ⑨에서는 각문자의 수가 비교적 적으며, 우하방으로 사선으로 내려긋는 필법을 3개조에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김기실이 쓴 68개조의 사선 중에서 우하방으로 내려긋는 사선의 필법이 52개조, 반대로 좌하방으로 내려긋는 사선의 필법이 16개조나 되어, 양자의 필법을 운용하여 쓰는 고유필법(固有筆法)이 확인 된다.

자료 ③의 강기훈이 쓴 2종의 편지중에서 전자(前者)에는 봉투를 포함하여 36개조, 후자는 봉투를 포함하여 40개조, 자료 ④에는 88개조의 사선이 있다. 도합 167개조의 사선의 필법은 「하」와 같이 우하방을 향하여 기림에서 가압한 후 빼쳐내리는 필법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술한 김기실의

1 사신의 필법과는 근본적으로 상이함을 알 수 있다.

감정물건인 유언서의 사신의 필법을 보면, 첫째장에 있는 26개조 중에서 「능」와 같이 우하방으로 내려긋는 필법이 6개조, 반대로 「능」와 같이 좌하방으로 내려긋는 필법이 20개조나 된다. 둘째장에서는 16개조 중에서 「능」와 같이 우하방으로 내려긋는 필법이 5개조, 반대로 좌하방으로 내려긋는 필법이 11개조에 이른다.

내용이 상이한 2장의 유언서의 사신의 필법을 보면, 42개조 중에서 우하방으로 내려긋는 필법이 11개조, 반대의 필법이 31개조로 각기 운용되고 있으며, 자료에 든 김기실의 사신의 필법과 특색이 공통되고 있다. 강기훈의 사신의 필법과는 명확히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2) 「ㄹ」의 필법에 관하여

자료의 문자 중에서 「ㄹ」 등의 받침 「ㄹ」의 필법을 보면, 김기실이 쓴 ②에는 14개조, ⑤에는 4개조, ⑥에 3개조, ⑦에 1개조 ⑧에 4개조 등 합계 26개조가 있으며, 모두가 「2」와 같이 제2획의 횡선을 생략하여 제1, 2,

3획을 한 획으로 단번에 쓰며 제3획을 끝올림의 횡선으로 배치 올리는 필법을 사용하고 있다.

강기훈이 쓴 받침 「ㄹ」은 ③에 58개조, ④에 84개조가 있으나, 모두가 「ㄹ」 「ㄹ」와 같이 제2획의 횡선을 가릴하는 필법을 사용하고 있다.

감정물건인 유언서의 「ㄹ」 문자의 필법을 보면, 첫째장에 20개조, 둘째장에 14개조가 있는데, 모두가 「ㄹ」와 같이 제2획의 횡선을 생략하고 단숨에 쓰고 있어, 김기실의 필법과 특색이 공통되고 있으며, 강기훈의 필법과는 상이함이 확인된다.

3) 「ㅍ」 「ㅑ」의 필법에 관하여

김기실이 쓴 자료의 「ㅍ」 「ㅑ」의 각문자의 횡선의 필법을 보면, ②에 40개조, ⑤에 14개조, ⑥에 10개조, ⑦에 5개조, 마지막의 봉투 겹면의 ⑧에 3개조 ⑨에 14개조 등 도합 86개조가 있다. 이것들의 제2, 3획의 횡선의 필법을 보면, 수평으로 긋는 필법을 다용하고 있고, 그밖에 끝부분을 밑으로 향하여 내려긋는 필법도 병용하며, 종질을 가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강기훈이 쓴 ③과 ④의 「ㅍ」 「ㅑ」문자는 전부 297개조이다. 그중에서 제2, 3획의 필법을 보면 끝올림의 필법을 사용하여 종질을 세척올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유언서 2장 중에는 「ㅍ」 「ㅑ」의 문자는 도합 83조가 있다. 제2, 3획의 필법을 보면, 「ㅍ」 「ㅑ」와 같이 수평 혹은 끝올림의 필법을 사용하고 있고, 종질을 가압하여 끝머리를 짓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김기실의 필법의 특색과 공통되고 있으며, 강기훈의 필법과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4) 「ㅁ」의 필법에 관하여

김기실이 쓴 자료의 문자중의 「ㅁ」과 같이 「ㅁ」부분의 필법을 보면, 「1」과 같이 제2획을 굵히 종질을 가압하여 끝머리를 짓는 필법과, 「2」와 같이 제2획의 종질에서부터 진중(転重: 편을 떼지 않고 겹쳐서 다음 획을 쓰기 시작하는 것)하여 제3획으로 이행하는 두가지의 필법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보다 자세히 분류하여 보면, 자료 ②에서는 「ㅁ」부분의 필법 18개조 중에서 「1」과 같이 쓴 것이 12개조, 「2」와 같이 진중하는 필법이 6개조로 나뉘어져 있다. 자료 ⑤에서는 2개조 중 각 1개조로 나뉘어 진다. 자료 ⑥에서는 5개조 중에서 「1」가 1개조 「2」가 4개조로 나뉘어 진다.

다. 자료 ⑦에서는 2개조 중 각 1개조로 나뉘어 진다. 자료 ⑧의 이력서에서는 허서체의 또박또박한 필치로 5개조 중 4개조를 「口」와 같이 쓰고 있으며, 마지막 1개조를 「ㄷ」와 같이 행서체로 바꾸어 쓰고 있다. 김기실이 쓴 32개조의 「口」부분을 보면, 이력서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4개조를 허서체로 「口」와 같이 쓴 것과, 「ㄷ」와 같이 제2획의 종필을 끝맺음짓고 있는 것이 15개조, 전중하는 필법이 13개조 있으며, 제2획의 종필을 가압하여 끝맺음 짓는 필법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김기실이 쓴 ③에는 「口」부분이 81개조 있는데, 「ㄷ」와 같이 제2획의 종필을 가압하여 끝맺음짓는 것이 30개조, 제2획의 종필을 전중하는 필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51개조이다. ④에서는 전부 60개조 있는데 제2획의 종필을 가압하여 끝맺음 짓고 있는 것이 16개조, 제2획의 종필을 전중하는 것이 44개조니 된다. 이를 합치하면 제2획의 종필을 가압하여 끝맺음 짓는 것이 46개조, 종필을 전중하는 것이 96개조로 후자가 훨씬 많이 사용되고 있어 김기실이 쓴 필법과 비율이 상이한 것이 증명된다.

감정물건인 유언서의 「口」부분의 종필의 형태를 보면 첫째와 둘째장에 나오는 42개조 중에서 종필을 가압한 것이 32개조, 종필을 전중하는 것이 10개조 이어서 자료의 김기실이 쓴 종필과 필법의 비율이 합치하며, 김기훈의 종필의 필법의 비율과는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5) 「ㄷ」의 필법에 관하여

김기실이 쓴 자료의 「ㄷ」의 각문자의 필법을 보면, 2에 18개조, 5에 5개조, ⑥에 2개조, ⑦에 4개조 ⑧에 10개조 등 합계 39개조이다. 이들 모두가 제1, 2획의 종선을 평행이 아니라 곡선적 필치로 연속으로 굽어서 내려갔고 제2획의 종필에서 제3, 4획을 연속필기(連続筆記)로서 「ㄷ」와 같이 쓰며, 종필을 제2획의 종선보다 우외측(右外側)으로 돌출되도록 빼쳐 올리는 필법을 사용하고 있다.

김기훈이 쓴 ③, ④의 「ㄷ」의 문자는, 전부 121개조이다. 그 중에서 「ㄷ」와 같이 제1, 2획의 종선을 수직이 아니라 우하방(右下方)으로 직선적 필치의 사선으로 그어 내리며, 제3, 4획을 행서체의 속필로쓰고, 종필을 제2획의 사선상(斜線上)에 가압하여 끝맺음짓는 형태이다. 또한 유례(類例)는 적지만 1987년 5월7일의 처음부분에서는 「ㄷ」와 같이 허서체로 제3, 4획을 분리하여 쓰는 필법도 사용하고 있다.

감정물건의 유언서를 보면, 첫째장에 9개조, 둘째장에 11개조가 있어 20개조 전부의 필법을 보면, 「ㄷ」와 같이 김기실이 쓴 필법과 특색이 공통되게 나타나 있다.

결론

감정물건인 2종의 유언서의 필적은 이상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감정자료인 김기실이 쓴 각종의 필적과 필법의 특색이 전적으로 공통되고 있으며, 김기훈의 필적과는 근본적으로 상이하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따라서 감정주문의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상.

또한 별도첨부자료로서 실체현미경사진(實體現微鏡寫真)으로 확대한 대표적인 각문자에 적·청색으로 필적의 상이점을 도시하였다.

大西芳雄 略歴

- 1948년 동경국립박물관 근무
- 1979년 동경국립박물관 문부기관(文部技官) 정년퇴직
- 1988년 치바(千葉) 공업대학 강사 정년퇴직

감정 경력

1951년 동경 지방 재판소 형사부 필적 감정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 전국의 재판소의 의뢰에 따라 형사
 민사사건의 필적감정에 종사하다.

대표적인 업적으로는 1949년 8월17일에 발생한 마츠카와(松川)
 사건의 필적감정등을 들 수 있다.

1974년 경시청 장립 박주년 기념으로 개인감사장 수상. (4명중의 한사람)

①-2 鑑定物件
 キ4・キソル(金基命)所持の遺言書

아버지. 어머니 -
 어찌이런 일인가.
 무슨 이해의는 인상했다는 생각은
 하지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으나
 생각합니다. 여지껏 아버도 아버지, 어머니에게
 혼란을 겪은 해인지 못했지요.
 하지만 이제 기성이가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아들 각각의 아들이 라는 신호하여
 마지막 혼란을 하려 합니다.
 모든 문제는 대체로 사무실에 위임하십시오.
 정미로. 선배이요. 서로서로 위임하십시오
 위임하십시오. 제발보다 아끼는 사랑하는
 선배님들입니다.

- 기성 -

유이 리보복사본 대복이상이
 안다

이. 김이. 김이. 김이

5 /

⑨ キム・キソル (金基高) の筆跡

履歴書

이 력 서		주민등록번호	
성명	김기설		
생년월일	서기 1988년 11월 27일생 (만 24세)		
주소	경기도		
호주관계	호주의외관계	본인의 부	호주성명 김정연
년월일	학력 및 경력 사항	반명	
81. 2. 16	광화 중학교 졸업		
83. 7. 13	수도청가공업고 "응배천과" 취퇴		
83. 8. 15	대인 취업고시 합격		
88. 6. 23	육군 제 8736 부대 제대		
88. 12. 29	석용 섬유 입사		
90. 2. 4	석용 섬유 퇴사		
90. 2. 27	주) 다과 인력서비스원 입사		
90. 11. 14	퇴 사		

2

⑨ 履歴書 上部 (拡大図)

성명	김기설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서기 1988년 11월 27일생 (만 24세)	
주소	경기도	
호주관계	호주의외관계	호주성명
	본인의 부	김정연
년월일	학력 및 경력 사항	반명
81. 2. 16	광화 중학교 졸업	
83. 7. 13	수도청가공업고 "응배천과" 취퇴	
83. 8. 15	대인 취업고시 합격	

3

⑨ 履歴書下部(松大回)

9

90	90	88	88	83	83	83
11	24	10	6	8	7	2
14	4	29	23	15	13	16
특	주) 특과 이력서작성 인차	선용 선유 특과	선용 선유 인차	육구 제 8기 26분과 제과	수도특과 공업고 "승내선과" 특과	관과 중학교 증업

4

③-1

獄中からの手紙 カシキフン(姜基勳)の筆跡
1987. 6. 8.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강박관념이. 어쨌든 한숨이 두꺼워
찾아내서 대응이. 별 걱정이 되지는 않지만 (?) 아버지의 건강에 대해서
생각이 많습니다. 봉 괴 같 하신은. 운동하는. 지반이... 왔을때
안녕 받은 인양으로 조로 티모르를 리는 듯 합니다. 한해 여러한 가난을
같은 것도. 어떤 편환리나 생략됩니다. 저는 언제나 같 있게
지키는 것보다 해심 양을 부득이합니다. 어쨌든 시정들을
부득이합니다. @ 岩波 現代文 1987 (1987. 12. 10)
① 전국 2차 1차 (문학 漢學) ② 해방전후사의 인식 2 (최복자)
③ 1905년 혁명 (주유, 김연익) ④ 중국현대문학사 (정사)
⑤ 중국문학의 역사학 (기남) ⑥ 시가사론(정호영) ⑦ 조선문학사 (백산)
⑧ 세계문학의 역사 (최복자) ⑨ 구미역사의 개관 (백산)
⑩ 세계문학의 개관 (최복자) ⑪ 한국문학의 개관 (최복자)
⑫ 대한아메리카 문학사 (백산)
⑬ 세계문학의 개관 (최복자) ⑭ 아리랑 (최복자)
관례: 문학의 개관을 보려면 3권은 다 읽어 보아야 합니다.
입니다. (최복자) ⑮ 아리랑의 개관 (최복자)
⑯ 1905년 혁명 (주유, 김연익) 부득이합니다. 자살하려는 생각을
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문인**

p.5 한 서문. 정리에 온다. 2번을 승려에게
안부 전해 주십시오.
어쨌든 양도 많이 부득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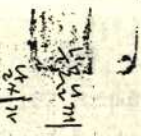
검인본

5

③ - (a) 上

獄中からの手紙 上部 (拡大図)

1987. 6. 8.



 手紙の
 上部の
 部分に
 関して
 説明を
 します。

① 手紙の上部には、
 1985年頃(宇野浩二)の
 署名がある。

② 手紙の下部には、
 1987年6月8日の
 日付が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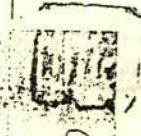
③ 手紙の内容は、
 獄中の生活や、
 家族への思いなど
 について書かれて
 いる。

6

③ - (a) 下

獄中からの手紙 下部 (拡大図)

1987. 6. 8.



 手紙の
 下部の
 部分に
 関して
 説明を
 します。

① 手紙の下部には、
 1987年6月8日の
 日付がある。

② 手紙の内容は、
 獄中の生活や、
 家族への思いなど
 について書かれて
 い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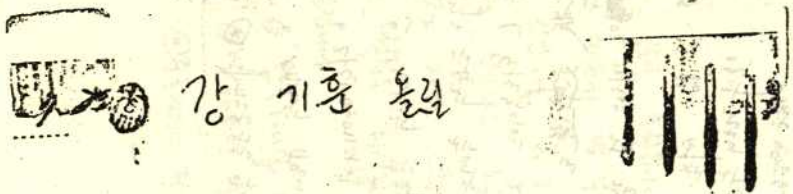
③ 手紙の下部には、
 1987年6月8日の
 日付がある。

7

③ -1(c) 封筒表

獄中からの手紙 カン・キフン(善基勲)の筆跡

封筒表書
1987.6.8.



받는 사람 서울특별시

강 은옥 (대신부)

1 3 3 - [] []

③ - 2

獄中からの手紙 カン・キフン(善基勲)の筆跡
1987.5.7

어머님께
 안녕하세요. 건강하신지요.
 지난 여름에 그렇듯이 밤 잠도 큰게 아슬아슬 하는 말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지내고 보니
 밤이 지날수록 시간의 흐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밖에서 느끼는 것과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름의
 불만 없이 그 아름다운 여름의 추억을 생각해 보면 부끄러움 없이
 더욱 자랑스럽습니다. 그 추억은 그 추억이 아니라 추억이
 남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기대는 물론입니다. 그 추억이
 함께 있을 때, 그리고 우리들 둘러싼 모든 것이 다 함께 있을 때
 함께 생각할 수 있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추억이
 남습니다. 부모님의 기대도 달리 생각해 보면, 중생을 하여 부유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이 되어 부유한 생활 가운데서 남는 것이
 겸손한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대의 구별은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비단 구별이 없이 모두가 더불어 사는
 그러한 세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의 부모님의 그러한
 비움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변할 수 있는
 미증역으로 남는 다른 추억에 비해서가 너무 단박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 자유롭게 용기를 씌워서... 건강하십시오.
 이만 드립니다.

1987 5 7

조지 강기훈

89

③-2(가) 上

獄中からの手紙 上部
1987.5.7.

1987.5.7. 10
 手紙が 何と 大層이고 愛합니다. 健康하십시오.
 3월 14일 1부 5월 7일 2부 5월 7일 3부 5월 7일
 4월 14일 1부 5월 7일 2부 5월 7일 3부 5월 7일
 5월 14일 1부 5월 7일 2부 5월 7일 3부 5월 7일
 6월 14일 1부 5월 7일 2부 5월 7일 3부 5월 7일
 7월 14일 1부 5월 7일 2부 5월 7일 3부 5월 7일
 8월 14일 1부 5월 7일 2부 5월 7일 3부 5월 7일
 9월 14일 1부 5월 7일 2부 5월 7일 3부 5월 7일
 10월 14일 1부 5월 7일 2부 5월 7일 3부 5월 7일
 11월 14일 1부 5월 7일 2부 5월 7일 3부 5월 7일
 12월 14일 1부 5월 7일 2부 5월 7일 3부 5월 7일

③-2(가) 下

獄中からの手紙 下部 (拡大図)
1987.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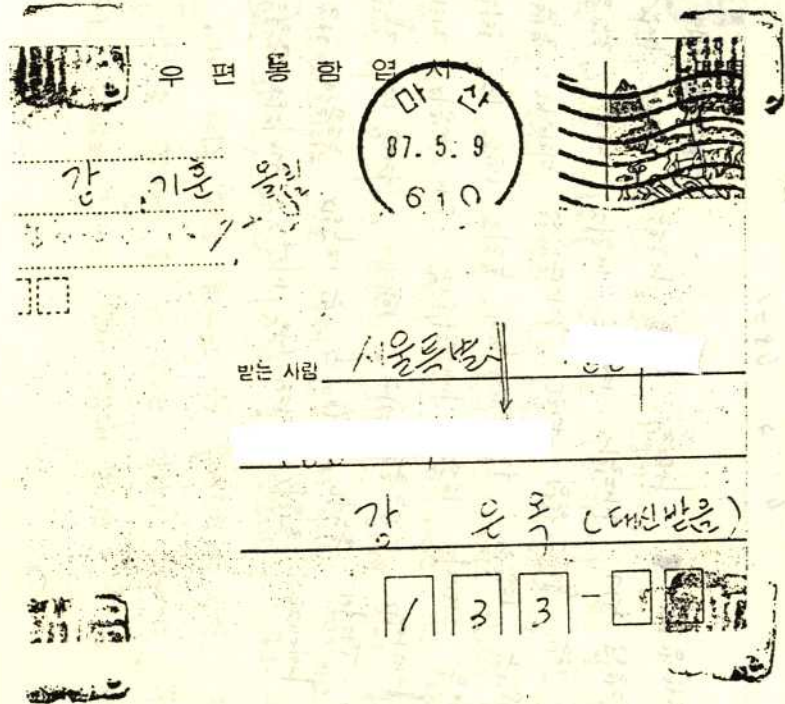
1987.5.7. 11
 手紙가 何と 大層이고 愛합니다. 健康하십시오.
 3월 14일 1부 5월 7일 2부 5월 7일 3부 5월 7일
 4월 14일 1부 5월 7일 2부 5월 7일 3부 5월 7일
 5월 14일 1부 5월 7일 2부 5월 7일 3부 5월 7일
 6월 14일 1부 5월 7일 2부 5월 7일 3부 5월 7일
 7월 14일 1부 5월 7일 2부 5월 7일 3부 5월 7일
 8월 14일 1부 5월 7일 2부 5월 7일 3부 5월 7일
 9월 14일 1부 5월 7일 2부 5월 7일 3부 5월 7일
 10월 14일 1부 5월 7일 2부 5월 7일 3부 5월 7일
 11월 14일 1부 5월 7일 2부 5월 7일 3부 5월 7일
 12월 14일 1부 5월 7일 2부 5월 7일 3부 5월 7일

③ -2(c) 封筒表

獄中からの手紙 カン・キフン(姜基勳)の筆跡

1987. 5. 9 消印

封筒表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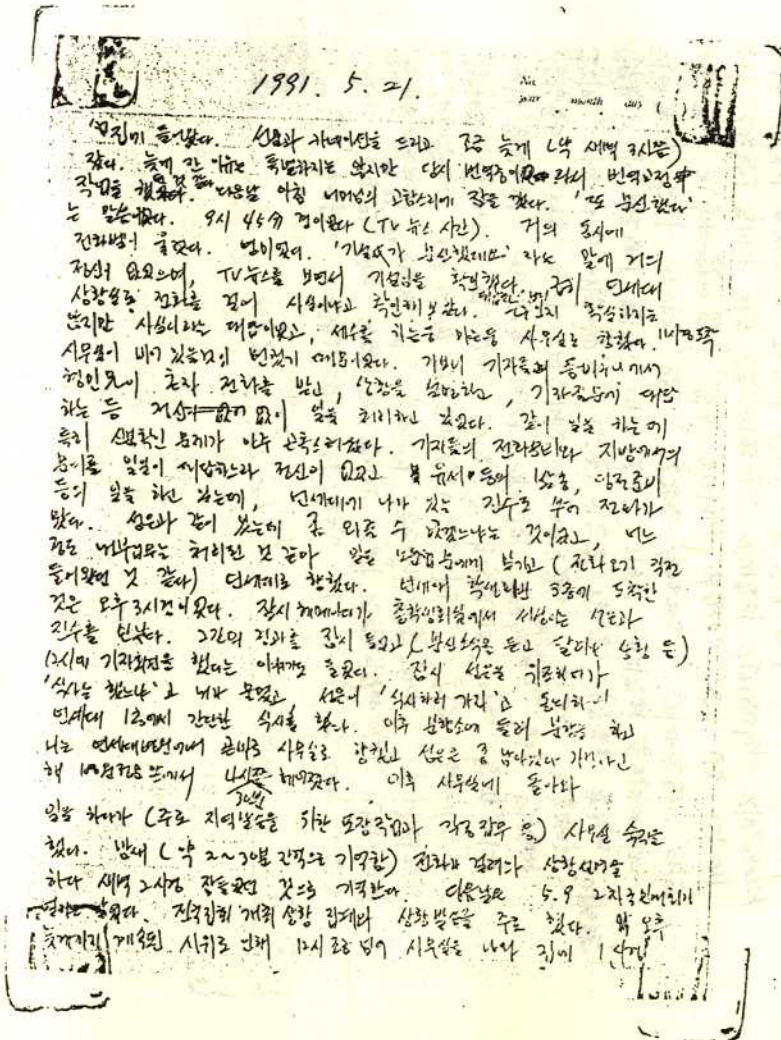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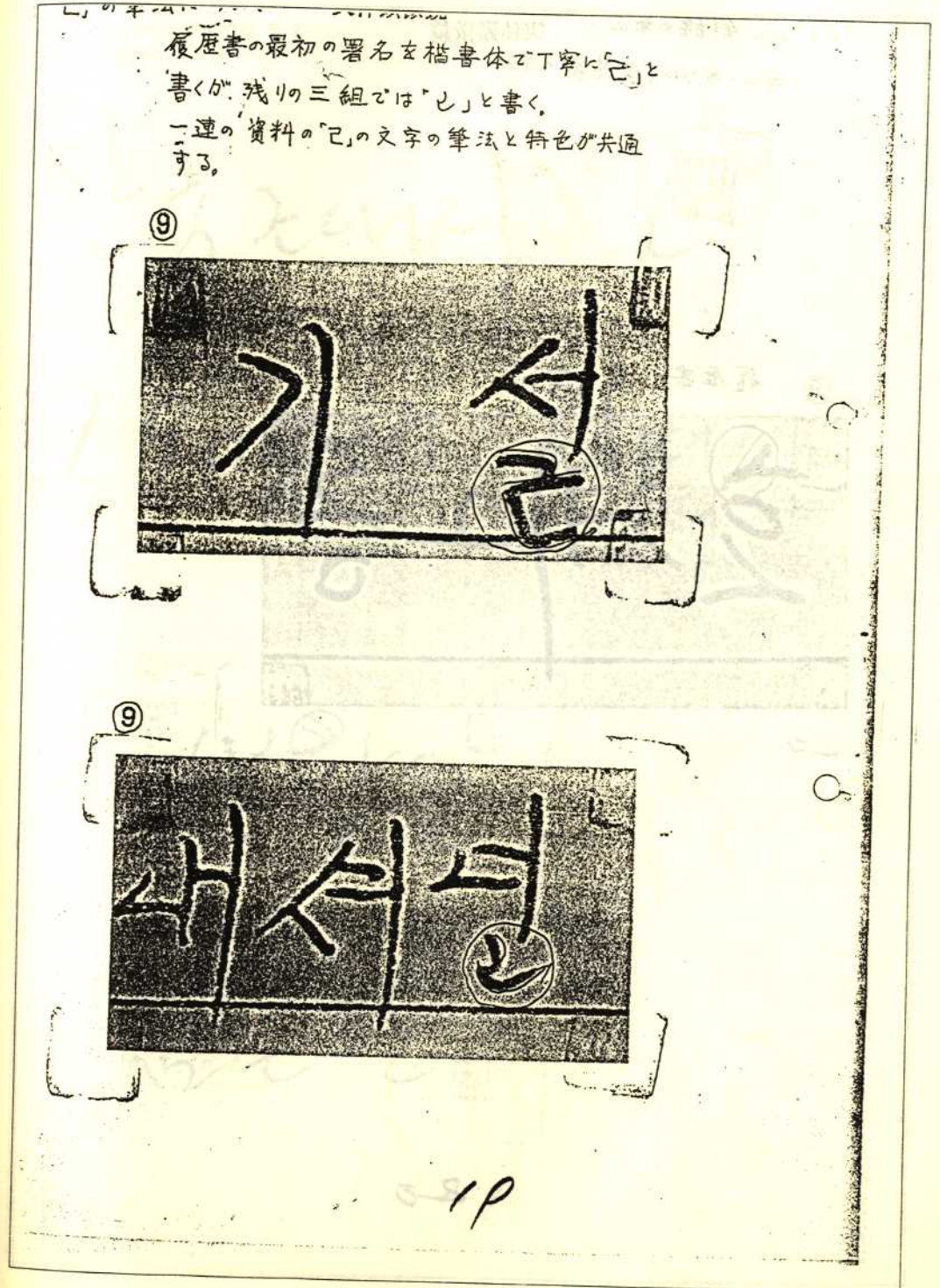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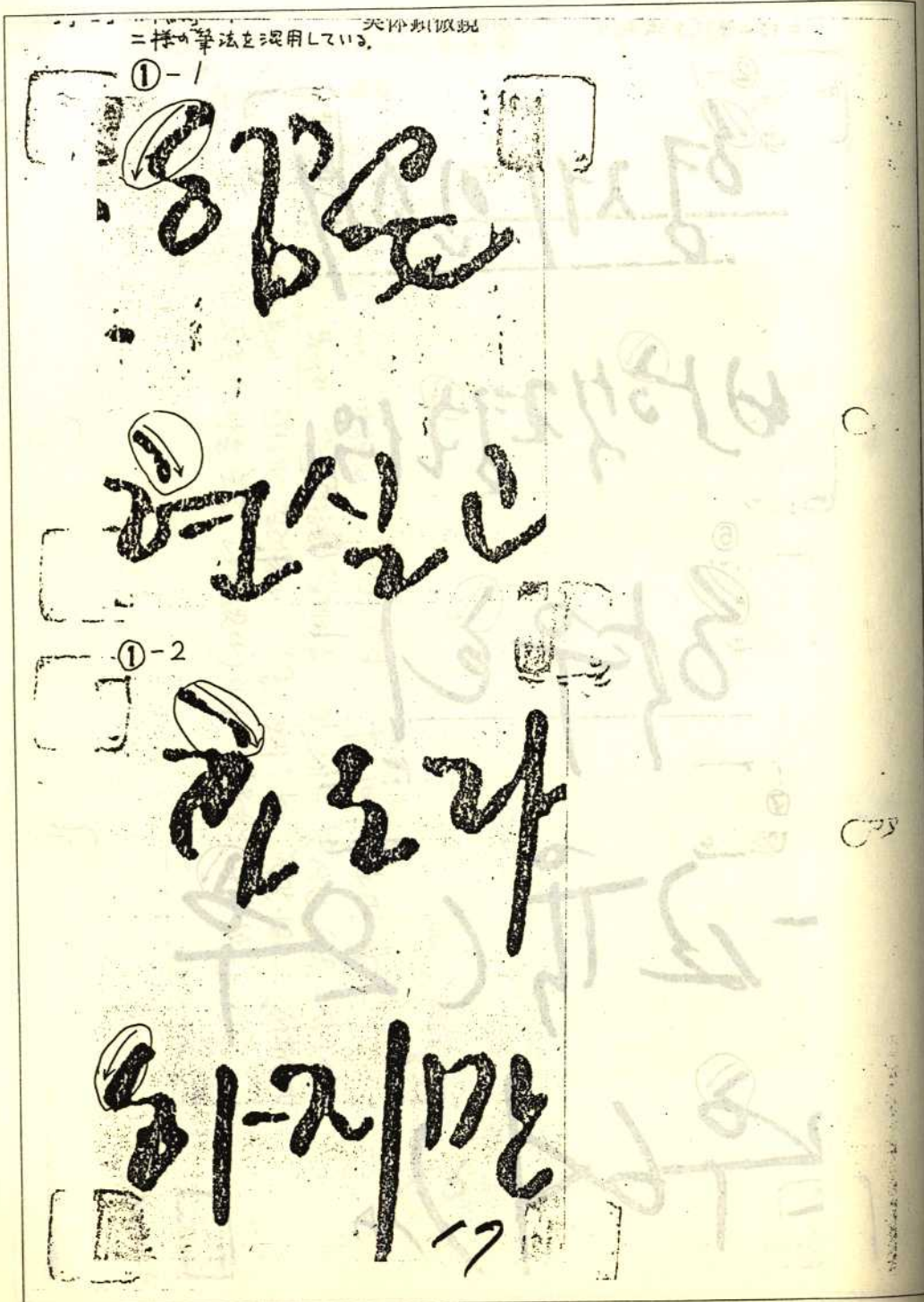
④ 칸·키프론 본인의筆跡, (姜基勳)

1991. 5. 21.

最近の本人の筆跡



13



「ㄱ」 「ㄴ」 斜線の筆法 実体顕微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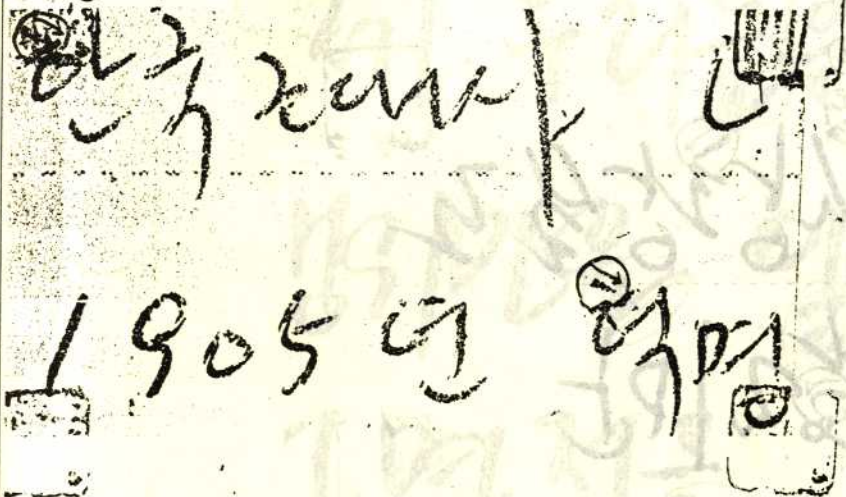
キム・キソル(金基高)の筆跡

⑨ 履歴書の一部



カン・キアツ(等基勉)は
斜線を一定に42度とする

③-1



③-2



斜線の筆法について 実体顕微鏡

カン・キファン(羊毫 麴)は、斜線を一定に収める。

④

상황실로
호시만

キム・キノルの筆跡、

⑤

라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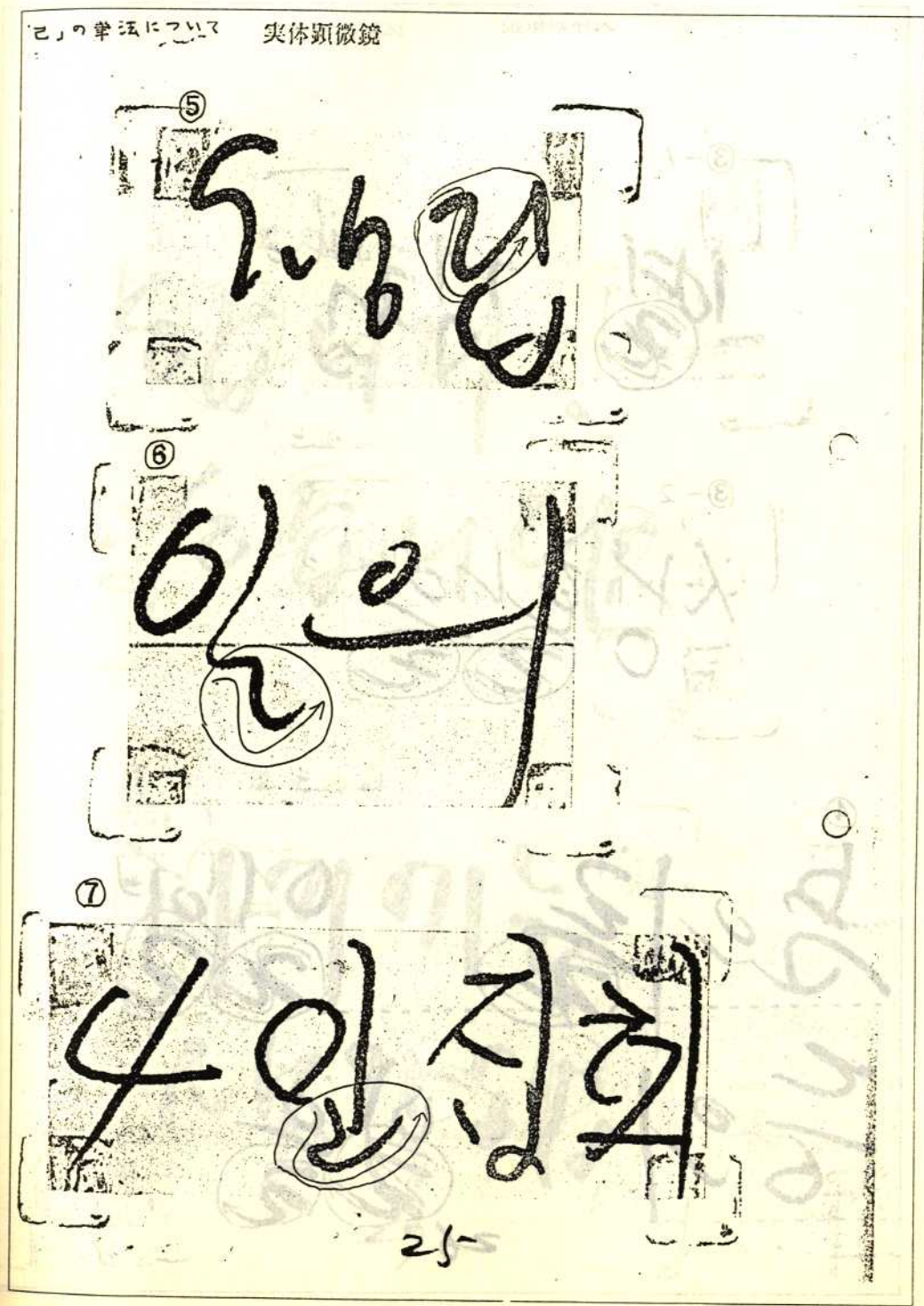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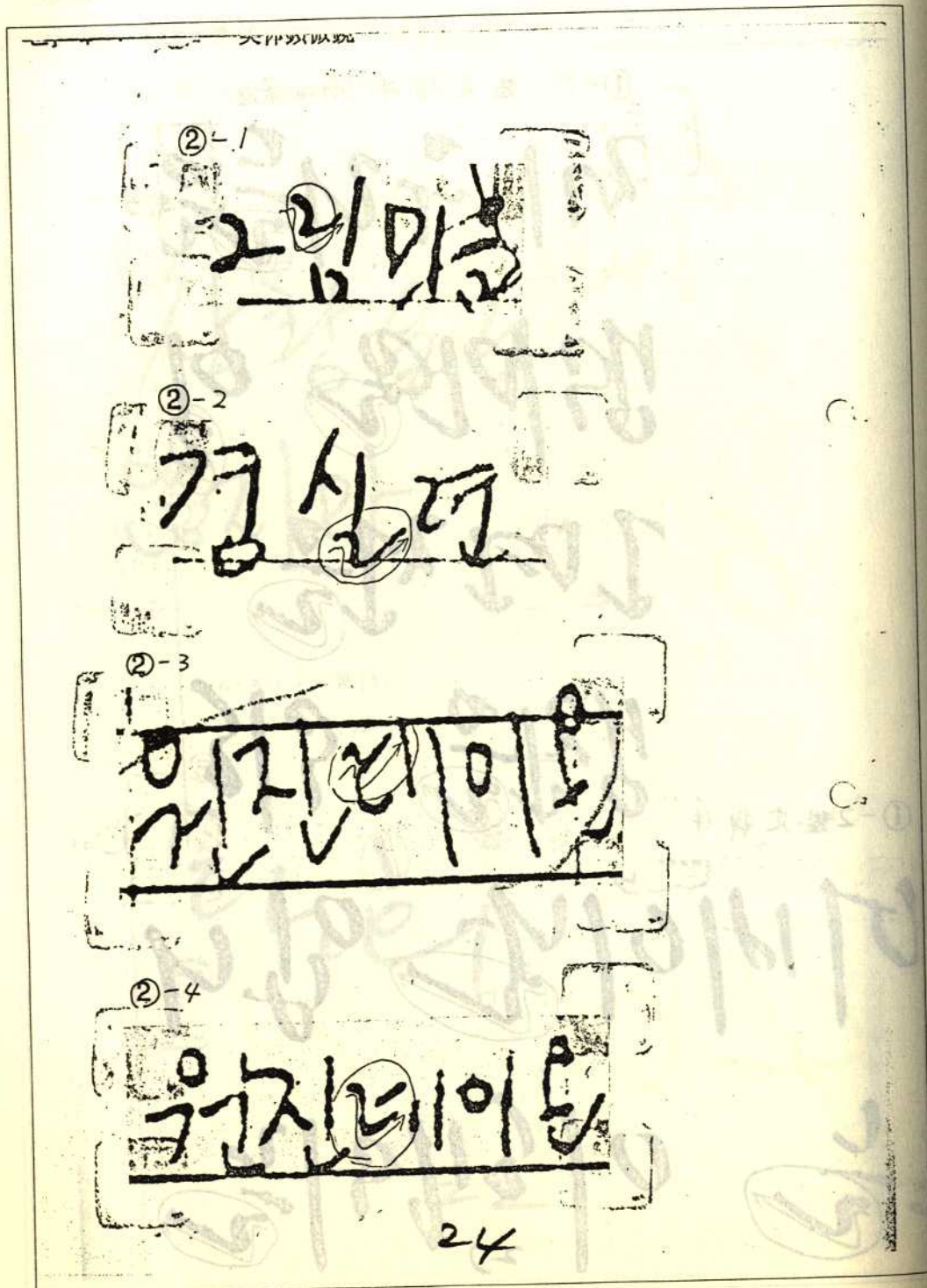
22

①-1 鑑定物件 実体顕微鏡

세우리드문
방미문 일
고명전문
봉진문 9/8

①-2 鑑定物件

이비이보 입너
이비이보



大仲野取鏡

③-1
 1월 12일

③-2
 1월 12일

④
 1월 12일
 1월 12일
 26

大仲野取鏡

①-1 鑑定物件

1월 12일

1월 12일

①-2 鑑定物件

1월 12일

1월 12일

27